

2026 CIS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가. 경제 전망 및 호부진 요인	04
나. CIS 최대국(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06
다. 현지 경제 상황	06
2. 정치(정책) 환경	09
가. 정부 현황	09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11
3. 주요 이슈 Pick	21
가. 다자주의화 가속 및 CIS 역내 질서 변화	21
나. 역내 대체 물류 노선 개발 가속화	22
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비약적 성장	24
라. 지속되는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26
마. 러-우 사태 종전 협상 동향	30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34
가. 시장 특징	34
나. 무역	39
다. 산업	50
라. 투자	52
2. 유망 산업	59
가. 소비재(화장품·식품)	59
나. 자동차·자동차 부품	60
다. 의료·제약	62
라. AI	63
3. 협력 기회	65
가. 통상·G2G	65
나. 프로젝트	66
다. 공급망(자원개발)	67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70
2. 진출전략	72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93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96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98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99

I . 진출 환경

- | | |
|---------------|----|
| 1. 경제 환경 | 04 |
| 2. 정치(정책) 환경 | 09 |
| 3. 주요 이슈 Pick | 21 |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가. 경제 전망 및 호부진 요인

□ (경제 전망) CIS 13개국 모두 '26년 플러스 성장이 전망되나, 중앙아시아·기타 CIS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러시아는 둔화 국면에 진입할 전망

IMF 기준 CIS 13개국 성장을 전망 추이 (IMF 기준)

구분	러시아* (제재)	중앙아시아				기타 CIS(서부 CIS(벨·우·몰), 코카서스 3국(아·아조)로 구성)							몽골*	
		카자흐 스탄*	우즈베 키스탄*	키르기 스탄	타지 키스탄	투르크 메니стан	벨라루스 *제재)	우크 라이나*	몰도바	아르 메니아	아제르 바이잔*	조지아*		
러 우 사 태	'21년	5.9	4.1	8.0	5.5	9.4	9.8	2.3	3.4	13.9	5.8	5.6	10.6	1.6
	'22년	-1.4	3.2	6.0	9.0	8.0	3.3	-4.5	-28.8	-4.6	12.6	4.7	11.0	5.0
	'23년	4.1	5.1	6.3	9.0	8.3	4.2	4.1	5.5	1.2	8.3	1.4	7.8	7.4
	'24년	4.3	4.8	6.5	9.0	8.4	3.0	4.0	2.9	0.1	5.9	4.1	9.4	5.1
	'25년	0.6	5.9	6.8	8.0	7.5	2.3	2.1	2.0	1.7	4.8	3.0	7.2	5.5
	'26년	1.0	4.8	6.0	5.3	5.5	2.3	1.4	4.5	2.2	4.9	2.5	5.3	5.5

* 무역관 소재 국가(러시아는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노보시비尔斯크, 상트페테르부르크 4개소 운영)

- (러·벨) '22년 이후 제재 환경 속에서도 자국 산업 육성과 수입대체 정책, 유가 강세 등에 힘입어 단기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러-우 사태 장기화로 '25년부터 경제 성장 둔화 사이클을 진입
- (중앙아시아) 러-우 사태 이후 풍선 효과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 중이며, 인프라 투자 확대, 전략광물 개발, 외국인 투자 유입 등으로 성장 모멘텀 유지 전망
- (기타 CIS) 코카서스 3국은 서비스·관광 중심의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우크라이나는 인프라 피해와 전력난으로 회복 지연 전망

□ (호재 요인) 중앙아시아 성장세와 자원시장 호조가 권역 경기 하방을 완충

- (인프라·산업다각화) 중앙아시아 중심의 성장 모멘텀 지속
 -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산업다각화, 전략광물 개발로 성장세 유지
 -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와 무역 다변화가 지역 내수·고용 회복에 기여

- (자원가격·재정여력) 에너지·광물 가격 강세로 성장 기반 강화
 - 석유·가스·비철금속 등 주요 수출품 가격 상승세가 재정수입 안정에 기여
 - 에너지 수출국 중심으로 공공·인프라 투자 여력 확대
- (물류·교역 네트워크) 역내 교역 및 물류 경로 다변화
 - 제재 이후 대체물류루트(중간회랑) 활성화로 교역 구조 개선
 - 중앙아시아-코카서스-튀르키예 간 연계 강화로 역내 물류 효율성 향상

□ (부진 요인)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구조적 제약이 전반적 성장세를 약화

- (제재·투자 위축)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성장 둔화
 - 제재 지속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러시아·벨라루스 경기 하락세 본격화
 - 기술·부품 조달 차질로 생산성 정체 및 수출경쟁력 약화
- (물가·환율 불안)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내수 위축 우려
 - 중앙아시아 전반의 인플레이션 지속과 통화가치 하락세로 내수 위축 우려
 - 실질소득 감소로 민간 소비 둔화 및 경기 확산력 약화
- (구조적 취약성) 기타 CIS 국가의 회복 제한 요인
 - 코카서스 3국의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로 글로벌 경기 변동에 취약
 - 우크라이나는 인프라 파괴 및 전력난 지속으로 회복세 제한

나. CIS 최대국(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¹⁾	2026년 ²⁾
인구	백만 명	147.8	147.9	147.4	147.0	146.4	146.1	146.1	-
명목 GDP	십억 달러	1,687	1,474	1,776	2,245	2,082	2,170	2,594	2,461
	십억 루블	109,608	107,658	134,727	156,941	176,414	201,152	221,851	236,262
1인당 명목GDP	달러	11,482	10,108	12,522	15,445	13,817	14,953	17,756	16,841
	루블	741,097	728,860	915,157	1,069,708	1,205,842	1,376,478	1,518,118	1,616,735
실질성장률	%	2.2	-2.7	5.9	-1.4	4.1	4.3	1.0	1.2
실업률	%	4.6	5.8	4.8	4.0	3.2	2.5	2.3	2.5
소비자물가상승률	%	3.0	4.9	8.4	11.9	7.4	9.5	6.6	5.1
재정수지(GDP대비)	%	1.9	-4.0	0.8	-1.3	-2.2	-1.6	-3.0	-1.7
총 수출	억 달러	4,197	3,335	4,942	5,921	4,247	4,336	4,106	4,558
(對韓 수출)	"	145.7	106.3	173.6	148.2	88.9	68.7	-	-
총 수입	"	2,539	2,401	3,010	2,765	3,031	3,015	3,238	3,482
(對韓 수입)	"	77.7	69	99.8	63.3	61.3	45.3	-	-
무역수지	억 달러	1,658	934	1,931	3,156	1,217	1,321	892 ^{-Q3}	1,076
경상수지	"	657	354	1,250	2,377	494	634	219(1H)	-
환율(연평균)	RUB/US\$	64.6	72.3	73.6	67.5	84.7	92.4	85.0	94.6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219.2	58.5	658.8	-130.9	107.1	-0.1	17.4(1Q)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319.8	94.8	404.5	-398.0	-100.5	-81.0	58.8(1Q)	-

주: 1) '25년은 추정치, 2) '26년은 전망치(GDP는 당해연도 평균 루블/달러 환율 적용)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관세청·중앙은행·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다. 현지 경제 상황(자료: 각국 관세청, 통계청 자료 종합)

- (경제성장률) 주요국 간 성장세 차별화, 중앙아시아는 고성장 지속·러시아는 둔화세 진입
 - (러시아) 부가세 인상과 물가 상승, 내수 둔화가 이어지며 '25년 1% 이하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26년에도 경기 회복세 제한 전망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은 유가 하락, 글로벌 무역 불안정 등 요인으로 '26년 성장률이 전년 대비 둔화된 4.3% 수준으로 예상, 우즈베키스탄은 소비 확대, 인프라 개발 등에 힘입어 '25년 상반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하며 성장 모멘텀 유지 전망
 - (아제르바이잔) '24년 GDP가 4.1% 성장하고 1인당 GDP 7,283달러 기록, 비석유 부문이 68%를 차지하며 산업구조 다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추세

- (몽골) 대외 수요 둔화와 재정 긴축 속에서도 광업 중심의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가며 '26년 5%대 중반 성장을 유지 예상
- (소비) 고물가·세제 개편 영향으로 전반적 소비 회복세 둔화
 - (러시아) 고금리 장기화와 가계 저축성향 강화, 대출 감소로 내수 회복세가 제약되며 소비 증가세 둔화 전망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은 11%에 달하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실질 구매력이 약화하며 내수시장 위축 불가피, 우즈베키스탄 역시 고물가 지속으로 향후 소비 확산이 제약될 것으로 전망
 - (아제르바이잔) 명목소득 7.2%·인구당 소득 6.7% 증가로 구매력 확대세가 지속되며 소매무역 회전율 3.8% 상승으로 민간 소비 확대 기대
 - (몽골)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매력은 확대되나, 물가 압력이 지속돼 실질 소비 여력 회복이 지연되는 흐름
- (산업생산) 제조·광업 중심 성장 지속, 산업 다변화 국가 간 온도차 존재
 - (러시아) 제조업 중심 산업생산이 3% 내외 성장세를 보이나 제재와 공급망 제약으로 회복 폭이 제한되는 양상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은 광업·채굴업·제조업 부문이 6% 이상 성장하며 산업생산을 견인, 우즈베키스탄은 광업·에너지·건설 분야에서 두 자릿수 성장세가 이어지며 산업구조 다각화와 투자 확대가 동시에 진행 중
 - (아제르바이잔) '24년 산업생산이 1.1% 증가하며 광업이 64%를 차지, 제약·전기장비 등 비석유 제조업 생산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 (몽골) 광업 생산 반등이 산업성장을 이끌며 전체 산업생산의 약 80%를 차지해 자원 의존형 구조가 지속되는 양상
- (대외교역) 러시아는 위축세, 중앙아시아·몽골은 교역 규모 확대
 - (러시아) '25년 상반기 對중 교역이 9.1% 감소, 1~8월 총 교역액이 3.2% 감소하였으며, 제재 회피와 교역 다변화 노력이 병행되는 상황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은 유가 하락과 수입 확대로 무역흑자 규모가 축소되며 경상수지 안정성 악화, 우즈베키스탄은 금 수출 확대('24년 +54.8%)가 전체 교역 성장(+19.8%)을 견인하며 수출 호조세 지속
 - (아제르바이잔) 에너지 수출 중심 구조를 유지하나 비석유 수출 다변화 정책이 추진되며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몽골) '24년 총 교역액이 전년 대비 22.1% 증가하며 광물 수출과 소비재 수입이 모두 확대되는 구조적 성장세 지속

- (투자) 러시아·카자흐스탄은 위축, 우즈베키스탄·몽골·아제르바이잔은 확대 노력 지속
 - (러시아) 외국인 투자 급감으로 정부·국영기업 중심 투자가 확대되며 민간부문 투자 위축이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은 △ 글로벌 금융 긴축, △ 지정학적 리스크, △ 유가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외국인투자 감소세, 우즈베키스탄은 정부의 적극적 투자 장려 정책으로 고정자본투자 5.5%, FDI 20% 증가가 나타나며 산업 전환 기대
 - (아제르바이잔) 에너지 부문 중심 투자가 유지되는 가운데 비석유 산업 투자 확대가 중장기 성장 기반으로 부상
 - (몽골) 외국인투자 334.8억 달러 유입으로 광업 중심 투자가 이어지며 자원 기반 성장세 강화

2. 정치(정책) 환경

- 러시아 중심의 자국 산업 보호·육성 정책 확대(수입 대체화, 폐차세 인상 등)
-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중앙아시아, 기타 CIS 국가들의 '멀티-벡터 외교' 강화
-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러-벨 경제통합 가속화,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

가. 정부 현황

□ (러시아) 러-우 사태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 유지

- '24년 8대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당선(투표율 74%, 득표율 87%), '30년까지 임기 수행
 - '20년 개헌을 통해 임기를 4년 중임에서 6년 중임으로 변경하고 이전 재임 기간을 초기화하여 '36년 까지 집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00년 첫 취임)
- 러-우 사태 피로 누적과 부분 군 동원령('22년 9월)에도 불구하고, 최근 2~3년간 푸틴 대통령 지지도는 꾸준히 77~80%의 높은 수준을 유지
-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은 '21년 9월 총선에서 450석 중 324석을 차지(72%), 압도적인 승리로 푸틴 대통령의 입지 강화
 - 최근 3년간 지방선거에서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한 대부분 주요 지역에서 여당 후보 승리

□ (중앙아시아)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멀티-벡터 외교*' 강화

* 여러 국가나 지역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협력을 추진하는 '다각적 외교' 의미

- (카자흐스탄) '19년 토카예프 대통령 취임, '22년 6월 7년 단임제 개헌 및 '22년 9월 조기 대선 대승을 통해 '29년까지 임기 확보
 - 전통적 세력인 러시아와 '25년 11월에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면서 에너지 협력 확대 추진
 - 동시에對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서방 및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도 강화*
 - *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 베트남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관계 격상('25년 5월)
-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16년 취임 후, '23년 개헌(7년 중임제) 및 조기 대선을 통해 '37년까지 대통령직 수행 전망
 - 강력한 중앙 집권형 리더십 하에 개혁과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며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 노력
 - 균형 외교와 실용주의를 기조로, 러시아·중국 등 전통적 파트너와의 협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서방 국가 및 국제 다자기구와의 관계 확대를 추진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교역·외교 파트너별 관계 및 협력 동향

주요국	세부 내용
대한 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4월 타슈켄트에서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24년 6월 서울에서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미래협력비전 2030'을 채택하며 인프라·철도·디지털·에너지 등 17건의 협력문서를 체결 • '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과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이 전화회담을 갖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며 '25년을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합의 • '25년 9월 뉴욕에서 양국 정상이 UN 총회 계기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에너지·디지털·교육·기후변화 대응 분야 협력 심화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경제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서 우즈베키스탄은 핵심 거점국으로 평가됨 • '23년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교역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순 상품 수출입을 넘어 인프라·산업·에너지·기술·교육 등 다방면에서 협력 확대 • Jizzakh 산업단지 조성, 지방 관개 인프라 개선, 중국–키르기즈–우즈베키스탄 철도 프로젝트 등 대형 인프라 협력사업이 추진 활발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적인 전략 파트너로, 에너지·군사·기술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가장 많은 해외송금 유입이 이루어지는 국가로, 러시아 내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송금이 국내 외환수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25년 상반기 전체 송금액 중 약 78%) • '25년 6월에는 대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가능성에 대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러시아가 주축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는 정식 회원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으로 가입하지 않고, 옵저버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유럽 연합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는 제도 개혁 및 경제 현대화 지원 파트너로 '25년 4월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EU–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EU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강화함 • '25년 10월 EU–우즈베키스탄 간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가 정식 체결되어 무역·투자·지속가능발전·디지털 전환 등 다방면에서 협력 틀이 새롭게 마련됨 • 우즈베키스탄은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로부터 누적기준 약 53억 유로 이상의 투자를 받았으며, '25년 10월에는 인프라 현대화,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약 1.1억 유로 규모의 추가 투자 유치 협의를 진행함

□ (기타 CIS)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경제 통합 가속화, 아제르바이잔은 대립·갈등 고조

-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 취임('94년) 이후 6선으로 32년간 집권('30년까지 임기)
 - 친러 정권으로 △ 연합국가 창설 계획 확정('24년 6월), △ 안전보장 조약 서명*('24년 12월), △ 전력 통합시장안 의회 비준('25년 11월) 등 러시아와 전략적 동맹 관계 유지 중
 - * 러시아와 벨라루스 중 한 쪽이 재래식 무기로 위협을 받을 경우 러시아가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 포함
- (아제르바이잔) 국부로 여겨지는 아버지 헤이다르 알리예프 대통령('93~'03년)에 이어 아들인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이 '24년 2월 5선에 성공하며 '31년까지 재임 예정

- 러시아와 역사적·경제적으로 밀접하나, △ 러 방공망의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격추('24년 12월), △ 아제르바이잔 의원의 러시아 입국 차단('25년 2월), △ 러시아 매체 바쿠 특파원 체포('25년 6월) 등 최근 긴장 고조 속에서 협력 구도 재편 움직임 포착
 - * (튀르키예) 아르메니아와의 전쟁 시 전폭 지원 → 가장 신뢰도 높은 우방국으로 등극(이스라엘) 국방 및 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주요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역할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러시아〉

① 수입대체화(자국산업 육성) 및 생산 자동화 적극 추진

- (수입대체화) 수입의존도가 높은 △ 자동차, △ 전자, △ 조선, △ IT, △ 의료·제약, △ 화학 산업 등 주요 산업 비롯한 639개 분야에서 수입대체화 정책 추진
 - 자국 기업 육성 및 외국 기업 현지 생산 장려 통해 제조업 경쟁력 확보
 - 철수한 글로벌 제조사 공장 인수, 원부자재 확보 및 노하우 취득하여 생산 재개
- (생산 자동화)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 생산성 향상의 핵심으로 생산 자동화 적극 추진, 러 스마트 제조 시장은 AI 발전 전략과 함께 '30년까지 두 배로 성장 전망'
- (영향 및 전망) 산업별 현지산 부품 의무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완제품 수입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 반도체 등 핵심부품 수급 애로와 △ 생산 소프트웨어 부재, △ 인력 부족으로 수입대체 속도는 미지수

산업별 수입대체화 현황

구 분	주요 정책	현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수 제조사 인수 후 공장 재가동, 폐차세 인상 • 수입부품 관세 및 현지부품 의무사용비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차 생산 증가세이나 수요둔화로 '25년 정체 • 중국차 현지 생산 확대로 중국 부품 수입 증가
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B 등 부품 현지 생산설비 정부 주도 투자 • 생산 보조금 지급, 중국 등 우호국 합작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부품 수급 난항 지속, 국제 결재 애로 및 협력사 제휴 중단 등 악재 속 점진적 대체
의료·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의약품 원료 의존도(80%) 축소 추진 • 약품 현지 생산라인 정부 주도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기준금리(17%)로 순수 민간 투자 저조 • 비제재 품목으로 독일 등에서 수입 지속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

② 지역 균형 발전 및 인프라 개발

- (인프라) '2036 지역 인프라 개발 계획' 승인
 - 주요 대상은 교통망, 에너지, 교육·의료로, △ 철도 4,500km, △ 도로 2,000km, △ 송전선 800km, △ 광케이블 2만km, △ 의료기관·연구센터 40곳 등 건설 예정
 - 향후 수년 내 60개 공항 현대화, 원자력 발전소 5곳에 총 10기 에너지 블록 도입 예정, 연방–지방 연계 추진을 위해 지역별 자체 인프라 계획 수립 예정
- (균형 개발) "러시아는 모스크바와 모스크바가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요 산업은 모스크바에 집중되어 있지만, △ 해양업(북서부), △ 농업(남서부), △ 광업(중부), △ 조선업·수산업 (극동) 등 지역별 중점 산업 존재

지역 균형 발전 주요 정책

구 분	현황
신동방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동러시아 지역을 동북아의 허브로 개발하기 위한 이주 장려 정책 및 국내선 항공 보조금 지급 등 • 중국 접경지역 물류 인프라 개발 투자, 동방경제포럼 지속 개최, 사할린 섬 개발 등
북극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말반도 등 주요 자원류 생산지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북극–극동러 연결 위한 물류·항만 개선 • 노바텍 등 주요 국영 에너지사 재자와 핵심부품 수급 애로 발생
철도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 등 자원류의對중국·인도·이란 수출을 위해 BRICS 협업 속 지방거점 간 철도 현대화 • 급격하게 늘어나는 러–중 교역 대비 부족한 철도·항만 인프라 상황, 러–중 간 직결 철도 신설
지방도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경제」 추진, 균형 발전 위한 지방정부예산 5,360억 루블(55억 달러) 배정 • 높은 기준금리와 노동력 부족으로 민간투자 저조 속 수도권 집중화 방지 위한 지역별 산업개발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

③ 수입 승용차·중장비 대상 폐차세 확대

- (용어정의) 폐차세란 러시아 내 운송수단(승용차·버스·중장비 등 포함) 생산업자 및 수입자(개인 포함)가 차량 출하 및 수입통관 전에 납부하는 일회성 세금
- (도입배경) '친환경적 폐차 인프라 구축 기금 마련'이 공식 목적이나, 자동차 현지 생산시 보조금* 형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수입차량에 대한 규제로 작동
 - * 용접, 차체 도장 등 공정별로 현지화 정도를 점수로 환산, 1,500점 이상 보조금 환급 대상에 해당('25년 8월 기준)
 - 러 정부는 폐차세 인상과 함께 2035 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현지화 및 기술자립 노력, 서방 철수 이후 중단된 공장 재가동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중
- (계산방식) 기본세율 X 분류별 계수(계수는 ① 배기량, ② 출력, ③ 연식에 따라 결정)
 - '24년 10월부로 70~85%가 인상되었고, '30년까지 매년 10~20%씩 인상 예정(1월 1일부)
- (참고사항) 자국 제조사 요구를 반영, 고출력 수입차 제한을 위해 '25년 12월부로 강화

'25년 12월 폐차세 개정 내용

구 분	기준	개정
분류별 계수 산출 방식	① 배기량, ② 연식	① 배기량, ② 연식, ③ 출력(신규 추가)
개인용 수입차량 우대세율 적용 기준	3,000cc 이하인 경우 출력 제한 없이 낮은 폐차세 적용(3,400~5,200루블)	3,000cc 이하더라도 160마력 초과시 판매용과 동일한 폐차세 적용(우대 없음)
자료: alta.ru		

- (적용예시) 배기량(1,598cc), 최대출력(180마력), 연식(3년 이하) 기준으로 폐차세가 '26년에는 90만 루블(약 1,530만원)에서 '30년에는 132만 루블(약 2,240만원)까지 부과

* RUB 1 = 17원 기준

1,000~2,000cc 승용차 폐차세 적용 예시('25년 12월 1일 개정기준)

배기량 (cc)	출력 (마력)	2026년		2027년		2030년	
		3년 이하	3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1,000~ 2,000	70 미만	800,800	1,408,800	880,800	1,549,600	1,172,400	2,062,600
	70~100	800,800	1,408,800	880,800	1,549,600	1,172,400	2,062,600
	100~130	800,800	1,408,800	880,800	1,549,600	1,172,400	2,062,600
	130~160	800,800	1,408,800	880,800	1,549,600	1,172,400	2,062,600
	160~190	900,000	1,492,800	990,000	1,642,000	1,317,600	2,185,600
	190~220	952,800	1,584,000	1,048,000	1,742,400	1,395,000	2,319,200
	220~250	1,010,400	1,677,600	1,111,400	1,845,400	1,479,400	2,456,200
	250~280	1,142,400	1,838,400	1,256,600	2,022,200	1,672,600	2,691,600
	280~310	1,291,200	2,011,200	1,420,400	2,212,400	1,890,400	2,944,600
	310~340	1,459,200	2,203,200	1,605,200	2,423,600	2,136,400	3,225,800
	340~370	1,663,200	2,412,000	1,829,600	2,653,200	2,435,000	3,531,400
	370~400	1,896,000	2,640,000	2,085,600	2,904,000	2,776,000	3,865,200
	400~430	2,160,000	2,892,000	2,376,000	3,181,200	3,162,400	4,234,200
	430~460	2,464,800	3,168,000	2,711,200	3,484,800	3,608,800	4,638,200
	460~500	2,808,000	3,468,000	3,088,800	3,814,800	4,111,200	5,077,400
	500	3,201,600	3,796,800	3,521,800	4,176,400	4,687,400	5,558,800

주: 배기량(1,000cc 미만, 1,000~2,000cc, 2,000~3,000cc, 3,000~3,500cc, 3,500cc초과) 및 차량 유형(M1~4, N1~3, G, O)에 따라 폐차세 상이

자료: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1291호(Alta.ru, '25년 11월 24일 조회) 기준 계산

④ 러-벨 경제 통합 가속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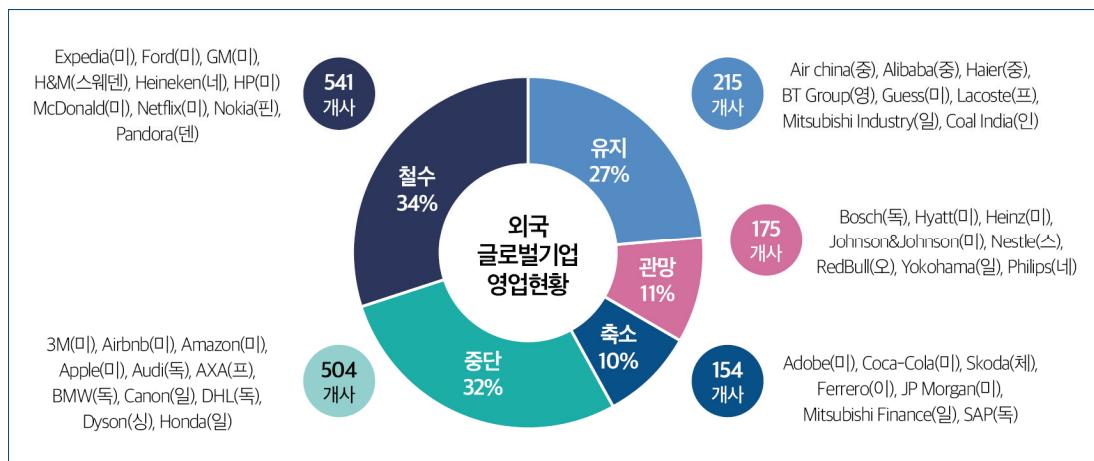
- (동향) '러-벨 국가연합 창설 조약('99년 체결)'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확정('24년 6월)
- (내용) 최근 벨라루스 의회에서 비준한 '전력통합망 구축' 등 11개 협력 방향 제시

러-벨 국가연합 창설 조약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

1	구조적 거시 경제정책 조율	2	공동 금융시장 구축
3	조세 정책 및 관세 분야 협력	4	통합 산업정책 운영 및 교역 협력
5	농업 정책	6	단일 에너지/원자력 시장 운영 협력
7	통합 교통 시스템 운영	8	공동 정보 공간
9	문화·과학기술·사회·인적교류	10	통계 분야 활동
11	법적 공간 형성 제시 및 실현 방안		

⑤ 러-우 사태 이후 철수한 외국 기업 복귀 원칙 논의 본격화

- (철수 현황) '25년 9월 기준, 글로벌기업 1,028개사 사업 축소·철수, 국가별 비중은 미국(32%), 영국(10.6%), 독일(7.8%), 일본(4.7%)… 중국(0.6%), 한국(0.5%)* 등
 - * 한국 기업은 유지 1개사, 중단 5개사



자료: 예일대 경영대학원('25년 9월)

- (복귀 동향) '25년 초 종전 협상 개시와 함께 러시아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에 대한 복귀(시장 재진입) 원칙 논의가 시작(관련 법안 마련 중)되었고, 일부 글로벌 기업은 러시아 내 상표권 재등록을 진행함
 - 복귀 조건 논의 본격화 이후, 러시아 정부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구체적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서방의 제재 완화가 선결 조건임을 시사('25년 6월)

- 러시아 정부의 시장 재진입 승인 기본 방향은 자국산업 육성·보호*, 철수 방식에 따른 차등** (러시아 정부 특별위원회가 복귀 신청기업별 개별 심사 예정)
 - * (자국산업) △ 생산 현지화 △ 러시아 기업과의 합작투자 △ 기술 이전 및 R&D KPI 설정 △ 생산 자동화 등 기술 격차 해소 위한 투자 진출 유도
 - ** (철수 방식) 러·우 사태 이후 일방적으로 철수한 외국 기업에 대한 정부·업계 비판 다수, 철수 방식에 따라 범주화하여 차등할 가능성 대내
- 생산 중단(잔류) 기업의 경우, 러시아와의 정치관계 복원, 제재에 따른 부품 조달 곤란 혹은 기업 평판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시장 재진입 시기 저울질
 - (시사점) 시장경쟁자(key players) 공백 속, 시장 재진입 시간차 전략적 활용 필요
 - 유럽·일본 중심 단기간 내 복귀 난항 예상, 한국은 첨단기술 보유한 협력 파트너로서 선제적 복귀 및 신규 진출로 시장 선점 필요

〈중앙아시아〉

① 경제구조 다각화 등 국가 중장기 비전 발표 및 로드맵 이행

- ‘카자흐스탄 2029 국가개발 계획(‘24년 7월)’
 - △ 경제 기반 강화, △ 신성장 동력 확보, △ 삶의 질 개선, △ 경제·사회 전환을 4대 전략 목표로 ’29년까지 GDP 4,500억 달러, 경제성장을 6~7% 달성 목표 제시
 - ‘2024–2029 국가 인프라 계획’을 추가로 수립, 에너지·교통·수자원·디지털 4개 분야에서 약 745억 달러* 규모의 204개 프로젝트 추진
- * 정부 예산 약 65억 달러, 그 외는 민간 국영기업 국제금융 PPP로 진행

2029 국가발전 계획에 대한 국가인프라계획 2024–2029 대응

2029 국가개발계획 전략목표	국가인프라계획 2024–2029 대응
경제 기반 강화(에너지·산업 현대화)	빌전소 현대화, 송전망 개선, 석탄·가스 CHP 개보수, 재생에너지 확대 프로젝트 46개
신성장 동력 확보(물류·디지털·농공업)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프로젝트 59개, 데이터센터·브로드밴드 프로젝트 10개
삶의 질 개선(물·환경·주거)	상하수도·위생 인프라 프로젝트 89개, 주택·지역 도시 인프라 개선
경제·사회 전환(지속가능성·투명성)	인프라 PPP·그린파이낸스 활용, 공공투자 관리체계 고도화

자료: Adilet.zan.kz

-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23년 8월)’ 지속 추진
 - △ 경제 경쟁력 강화, △ 산업 현대화, △ 사회복지 향상, △ 행정 효율성 제고, △ 환경·에너지 전환을 통해 ’30년까지 GDP 2배 확대, 1인당 소득 4,000달러 달성, 경제성장을 5~6% 달성 목표 제시
 - 특히, 자원 의존형 경제구조를 제조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지정하고 △ 에너지, △ 기계, △ 농식품, △ 섬유, △ 디지털 산업 육성에 집중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산업정책 방향 및 육성 분야

산업	주요 정책 방향	중점 추진 내용
에너지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다변화 및 인프라 현대화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 송배전망 개선, 민간 투자 유치(IPP·PPP)
기계·자동차·전기전자	제조업 고도화 및 수출형 산업 구조 전환	현지 조립·부품산업 육성, 산업클러스터 조성, 기술 이전 촉진
농식품 가공	농업 부가가치 제고 및 수출산업화	식품 가공·저장·포장·물류시설 확충, 글로벌 품질인증 지원
섬유·의류	원면 중심 구조 탈피 및 완제품 수출 확대	방적·직물·의류 일괄공정 구축, 패션·디자인 산업 육성
정보통신·디지털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IT Park Uzbekistan 육성, 스타트업 지원, 전자정부·핀테크 확산

자료: 우즈베키스탄 경제제정부, 2030 발전전략, 산업혁신 로드맵(2022~2026)

② 외국인 투자제도 및 지원 정책 고도화

- ‘카자흐스탄 2024–2029 투자정책 개념’ 업데이트 발표(‘24년 10월)
 - ‘29년까지 △ 외국인직접투자 1,500억 달러 유치, △ GDP의 23%까지 고정자본 투자 비율 확대, △ 비자원 중심 투자 다변화 및 일자리 12만 개 확보 목표 제시
 - 14개 특별경제구역 입주기업 세금 감면, 투자 종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금융 지원(저리대출, 보조금 지원) 등 전반에 걸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자청 정보

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기관명	 KAZAKH INVEST <small>NATIONAL COMPANY</small>	 Invest Uzbekistan
관할부처	외교부	투자부
설립연도	‘17년	‘23년(기존 투자청 조직 재편 기준)
주요기능	외국인투자 유치 및 지원, 인허가·절차 One-Stop 서비스, 특별경제구역(SEZ)·지역정부와 연계한 프로젝트 관리	투자 기회 발굴·프로젝트 지원, 투자계약·특별투자계약(SIA) 지원, 정부·지방기관 조정 및 투자자 서비스
주력산업	제조업(기계·화학·금속), 농식품, 에너지·재생에너지, 물류·운송, 광물·희토류	경공업·섬유, 농식품 가공, 기계·자동차, IT·디지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락처	+7 7172 620 620 / invest.gov.kz	+998-71-238-53-00 / invest.gov.uz

자료: 각국 투자청 사이트

- 우즈베키스탄, 법·제도 정비와 행정 절차 간소화 추진 노력 확대
 - '24년 투자정책법 개정을 통해 투자 승인 등록 절차 단일화, 행정인허가 기간 단축, 투자자 보호 조항 강화
 -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참여를 위해 민관협력(PPP)법을 보완하고, 에너지·운송·의료·교육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PPP 프로젝트를 적극 확대 중

우즈베키스탄 민관협력(PPP) 제도 운영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법·제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민관협력(PPP)법」 제정으로 공공 인프라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자본 참여 제도화 • '23년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요건 완화, 승인 절차 간소화, 정부 재정지원·지급보증 요건 명확화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P 개발청(PPP Development Agency, PPPDA) – 재무부 산하 설치 • 프로젝트 발굴, 입찰 계약 관리, 정책 조정 총괄 • ADB·EBRD·IFC 등 국제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타당성 조사·금융 조달 수행 • 홈페이지: https://www.pppda.uz
추진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에너지, 보건, 교육, 환경 등 공공서비스 중심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모두 사업 주체로 참여 가능
사업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T(Build-Operate-Transfer), BOO(Build-Own-Operate) 등 다양한 모델 병행
주요 추진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슈켄트 폐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 EBRD·ADB 공동 지원, 약 2억 달러 규모 • 사마르칸트 태양광 발전소 건설 : Masdar(아랍에미리트) 주도, 220MW급, 1.6억 달러 • 앙그렌 의료복합시설 조성사업 : 한국·튀르키예 컨소시엄 참여, 7천만 달러 규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재정 지원 및 리스크 분담 구조 명확화로 외국인 투자 안정성 제고 • 프로젝트형 외자 유치 확대를 통한 인프라 현대화 및 고용 창출 효과 기대

자료: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종합

〈우크라이나〉

① 2021-2027년 국가 지역 개발 전략 이행을 위한 2025-2027년 실행계획

-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역 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25~'27년 대규모 행동계획* 승인
 - * EU 제시한 권고 사항 중 “지역 정책 및 구조적 도구 조정”과 관련된 핵심 권고 사항 중 하나
 - 총 101개 과제를 포함하며, 점검 지표, 실행 일정, 재원(국가·지방 예산 및 국제 기금)을 명확히 규정

2025-2027 세부 실행계획

전략 목표	주요 추진 방향	인프라 및 시설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 통합된 국가 형성	• 점령지 재통합 및 지역 개발 촉진	• 학교 내 4,500개 안전 교실 설치	• 신규 일자리 창출
• 지역 경쟁력 강화	• 교육, 보건, 문화,	• 80만m ² 규모 사회주택 건설	• 투자 유치
•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등 공공 서비스 개선 • 전쟁 참전용사 및 국내 실향민 (VPO)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 건강센터 및 지역 안전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개발 • 디지털 기술 도입

자료: KOTRA 키이우 무역관 종합

② 우크라이나 개혁 매트릭스(Reform Matrix 2022–2032)

- '24년 6월, 개혁 매트릭스(Reform Matrix 2022–2032) 공식 도입
 - 국제 파트너들이 권장하는 조치 목록과 계속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약속한 것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과 관리 위해 추진
- EU, IMF, 세계은행, 우크라이나 퍼실리티(Ukraine Facility)* 프로그램 내에서 권장하는 조치 목록을 포함
 - * EU가 '24년 3월 공식 발표한 총 500억 유로 규모('24~'27년)의 우크라이나 경제·재정·재건·개혁 지원 프로그램,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재정 지원(Financial support) + 구조개혁(Reforms) + 투자(Investment) + 재건(Reconstruction)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 지원 매커니즘

우크라이나 개혁 매트릭스에 대한 외부 권장사항

EU	• 부패 척결 강화, 과도한 영향력 제한, 소수 민족에 관한 법률 개혁
IMF	• 재정, 물가, 금융 안정 유지, 경제 회복, 기업지배 구조 개선, 공공기관 강화
우크라이나 퍼실리티 (Ukraine Facility)	• 공공부문 구조 개혁 실행,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 개혁 실행, 경제 성장을 위한 우선 분야 개발
세계은행	• 기업지배 구조 개선, 재생에너지 생산 촉진, 금융 부분 강화,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접근성 개선 등

자료: KOTRA 키이우 무역관 종합

우크라이나 퍼실리티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금액	주요 특징/방식
전체 프로그램	• EU가 '24~'27년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 50 억	• 국가 예산 지원, 투자 촉진, 기술 지원 포함
(구성 1)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 국가 예산 지원 • EU 가입 관련 개혁 및 경제 회복 지원 • 분기별 계획 지표 달성을 지원	€ 38.27 억	• 대출 : € 33 억 • 보조금 : € 5.27 억 • 국방비용 사용 불가 • 보조금의 20%(€ 1.05 억) 지역 사용
(구성 2) 투자 기금	• 투자자 위험 완화 메커니즘 제공 • 우크라이나 우선 투자 부문 투자 유치	€ 6.97 억	• 지원 대상 : 우크라이나 민간·공공 기업 • 자금 조달 : EBRD, EIB 등 국제 금융기관을 통해
(구성 3) 기술 및 행정 지원	• 정부 기술 지원(EU법제 동기화, 구조 개혁) • 국가·지역·지방 정부 기관 역량 강화 • 시민 사회 지원 • 대출 이자 보조금 지원(기존 대출 포함)	€ 4.76 억	• 정부 및 관련 기관, 시민사회 단체 대상으로 지원

자료: UCCI

〈아제르바이잔〉

- ① '25년 정부주도 AI·디지털 분야 중점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시행
 - 「'25~'28년 아제르바이잔 인공지능전략」 수립 및 발표('25년 3월)
 - 국가 인공지능 전략 이니셔티브로, △ 민관합동 AI R&D 증진 △ AI 인재 육성 △ 국가 AI 표준화 및 거버넌스 체계 수립 등을 골자로 액션 플랜을 제시
 - 행정의 완전한 디지털화를 목표로 「아제르바이잔 디지털 개발 구상」 수립('25년 1월)
 - △ 디지털 ID 시스템 도입 및 대민서비스 간소화 △ 디지털 문서 확인 및 본인 인증 강화 △ 클라우드·AI·데이터서비스 기반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3개년 실행계획 공포
- ②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협력 다변화 적극 추진
 - 「세계은행 5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투자 촉진 기대
 - 세계은행이 각 국가별로 제공하는 중기 협력전략 보고서('25년 1월) 내에서 아제르바이잔에 석유·가스 의존도 완화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언
 - '25~'29년간 국제 금융기구 주관 아제르바이잔 내 프로젝트 및 차관 시행 시 녹색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전망
 - 건국 이래 최초로 시리아로의 천연가스 수출 성사('25년 8월)
 - 시리아의 1.2GW급 발전소 가동용으로 연간 12억m³ 가스 수출 개시
 - * '09년에 최초로 시리아로의 가스 공급 합의가 있었으나 불발된 바 있음
 - 기존 주요 수출 대상지인 EU 외의 신 수요처 개척으로 역내 에너지 안보의 키플레이어로서 아제르바이잔의 위상 제고 전망

〈몽골〉

- ① '2024~2028년 정부 활동계획' 확정 및 시행
 - △ 장기 국가발전전략 'Vision 2050', △ 중기 '신부흥 전략', △ 2021~2025 5개년 국가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2024~2028년 정부 활동계획'을 승인하고 본격 시행에 착수
 - △ 지역 균형 발전 △ 인적자원 개발 △ 경제성장 촉진 △ 인권 존중 거버넌스 등 4대 정책 축 아래 총 16개 분야, 620개 세부 목표 제시
 - △ 전력·에너지 부문 개혁, △ 국내 에너지 생산 확대, △ 산업화 및 신도시 건설, △ 지역 균형 기반의 대형 인프라 조성 등 경제 개발을 목표로 한 14개 메가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대규모 조달과 민관협력 (PPP) 방식이 병행 예정

- 한국 기업의 경우 △ EPC·O&M, △ 기자재·부품 공급, △ ICT·위성통신·디지털 서비스, △ 수처리·환경관리·스마트시티 기술, △ 금융조달·PPP 구조 설계, △ 현지 인력훈련·A/S 패키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② COP 17 개최 및 ‘10억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 지속 추진

- 몽골은 ’26년 제17차 UN 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COP 17) 개최국으로, 이를 통해 글로벌 환경 리더십 강화를 기대
 - 특히, 아시아 최초의 EU Forest Partnership 회원국으로 산림 복원, 생태계 보호 관련 국제 협력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기후 변화, 대기 오염 대응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10억 나무 심기’ 캠페인을 ’21년부터 추진 중이며, ’25년 10월 현재까지 약 1억 1,460만 그루 식재
 - 캠페인 목표 달성을 위해 몽골 21개 대형 광산 기업들 역시 총 6억여 그루 식재를 약속, 예산, 인력, 신기술을 활용해 적극 참여 중

3. 주요 이슈 Pick

가. 다자주의화 가속 및 CIS 역내 질서 변화

□ BRICS·SCO 중심 다자협력 강화

- (BRICS) 기존 5개국 협력체에서 나아가 최근 규모·역할 확대
 - 기존 5개국(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더해 신규 5개국(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UAE, 인도네시아) 정식 회원으로 합류, '전략파트너국'* 지위 신설('24년 10월)하며 신흥국 다수 참여
 - *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CIS 국가들도 '전략파트너국' 자격으로 참여 중
 - 구매력(PPP) 기준 BRICS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4%로 G7의 29.6%를 상회('24년), 자국 화폐 사용 확대 및 자체 결제망 구축 노력 등 금융 협력 강화
- (상하이협력기구) '01년 러-중 주도로 결성되어 NATO에 대항하는 협력 모델로 부상
 - 약칭 SCO로, '25년 현재 10개 정회원국(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이란, 벨라루스) 활동, 다수 CIS 국가 동참

□ CIS 역내 정치 질서 변화

러 시 아	중앙아시아	기타 C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사우스 포옹 등 BRICS로 외연 확장 및 서방과 차별화된 다극화 경제 블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 가스, 우라늄 등 자원 보유 및 유럽-아시아 연결의 지정학적 통로로서 전략적 가치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 우선주의 확대, 러시아와 공동 대응보다는 대중국·서방 협력 확대 등 실리 추구

※ CIS 역내 정치 질서 변화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EAEU, CSTO(집단안보조약기구)등에 적극 참여하며 러시아와 우호 관계 유지, 동시에 미국, EU, 중국 등과 연이어 C5+1 회담 개최하는 등 국익 극대화
- 몰도바는 '친EU', 조지아는 '친러 행보', 아르메니아는 'NATO 가입 추진' 등 이해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러시아와 협조와 갈등 지속(벨라루스는 러시아와 '경제통합 가속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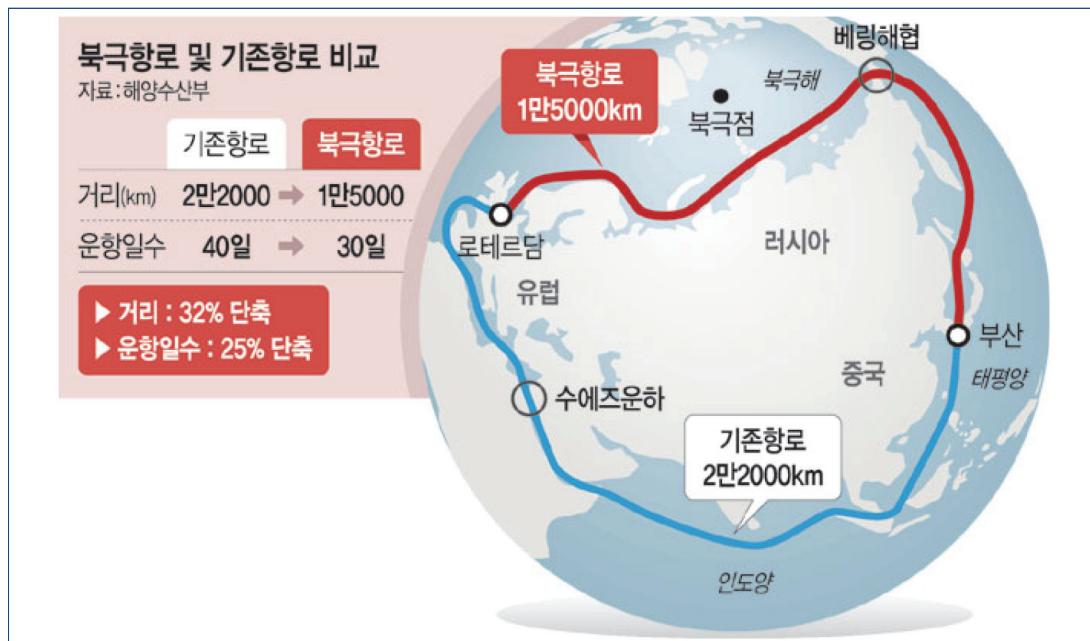


나. 역내 대체 물류 노선 개발 가속화

□ 북극항로

- (개발정책) 러시아는 「2035 북극항로 개발 계획」에서 세부 과제 명시, 북극항로 내 주요 항만 인프라 개선, 쇄빙선 개발 등 '35년까지 활성화 목표'
 - 152개 세부 과제 중 원자력 쇄빙선, 수로측량선 등 40여 개 완료('25년 7월), 다만 '24년 북극항로 물동량은 3,790만 톤(전년비 +4.5%)으로 당초 목표였던 8,000만 톤의 47.4% 수준
- (전략적 가치) △ 최근 중동·홍해 정세 불안, 수에즈 운하 리스크의 대체 경로, △ 기후 변화에 따른 연중 운항 가능성 확대, △ 세계 북극 해저 석유·가스 매장량의 약 60% 보유한 러시아의 전략자원 수출 핵심 통로로 역할 가능
 - 한국은 국정과제로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조성' 계획, 환적 루트(부산-북극) 구축을 통해 북극항만 개발 및 글로벌 환적 허브 역할 가능
 - 우리 조선업계는 '14~'20년 러시아로부터 쇄빙 LNG·유조선 45척 수주 경험 보유 제재 해제에 대비, 선박기자재 공급 및 인프라 구축 협력 모색 필요
- (한계) 수에즈 운하를 통한 부산↔로테르담 노선보다 항해 거리·일수 단축(22,000km → 15,000km, 40일 → 30일) 가능하나, 원자력 쇄빙선 동반 필요, 북극지역 환적 거점 부족 등으로 아직 실질적 수요 국가는 제한적

〈북극항로 개요 및 국내 추진 상황〉



자료: 국내언론, 해양수산부 등

□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 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

- (개요) 러시아-아제르바이잔-이란-인도로 연결되는 육·해상 7,200km 규모의 종단 노선으로, 기존 발트해·북해 해상로의 대체 노선으로 주목
 - (개발 동향) 현재 러시아 내부 루트는 철도운송이 가능하지만 이란 내륙 운송망이 완공되지 않아 ‘라.RequestMethod(Rasht)’~‘아스타라(Astara)’ 구간은 트럭으로 운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전략적 가치) 러시아 입장에서 서방 제재를 우회하는 우호국 중심의 안정적 물류 노선으로, 약 3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对인도·이란** 주요 협력의제로 삼아 ’28년까지 인프라 완공을 추진
- * 완공 시 상트페테르부르크부터 뭄바이까지의 약 18일 소요 전망(기준 대비 약 15일 이상 단축)

□ 환카스피해 국제운송회랑(TITR, 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

- (개요) 러시아 대신 중앙아시아와 기타 CIS 국가를 통해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따라 대체 루트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상승
 - * 중국 서부-카자흐스탄-카스피해-아제르바이잔-조지아-흑해-유럽
- (개발 동향)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및 EU의 Global Gateway 구상과 연계하여 국제 다자개발은행과 유럽 투자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노후 인프라 개선, 수송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젝트 활발히 추진 중
 - 환카스피해 국제운송회랑 도로 인프라 강화를 위해 세계은행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승인('24년 12월)
 - 유럽투자은행은 카자흐스탄 개발은행에 인프라 개발로 2억 유로 대출('25년 3월)
- (전략적 가치) 러시아를 우회함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45쪽 참고)와 연계하여 **对중앙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



자료: 국내외 언론

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비약적 성장

□ (러시아) '24년 시장 규모는 1,300억 달러로 메가 시장 형성

- 팬데믹 이후 폭발적 성장,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23년 +45%, △'24년 +36%, △'25년 1분기 +36% 등 최근에도 높은 성장을 지속
 - '25년 1분기 기준, 러시아 유통시장 내 전자상거래 비중은 18.3%로 직전 분기 16.2% 대비 상승, 미국·영국·중국 등 타 주요국(30~50%)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나 지방 중소도시에서 연 50~80% 성장을 지속되며 성장 동력을 높은 편
 - e-그로서리와 배달 서비스 발달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통한 소비가 활발하고, 러시아 최대 IT기업인 Yandex 배달로봇도 대도시('24년 24만 건) 내 상용화 단계에 이른

러시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WILDBER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 의류, 신발, 화장품 • '24년 매출액 : 358억 1,446만 달러 	Яндекс Марке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 가정용품, 식품, 가전제품 • '24년 매출액 : 57억 7,454만 달러
OZ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 가정용품, 가전제품, 화장품 • '24년 매출액 : 272억 1,683만 달러 	Мега Марке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 가정용품, 식품, 가전제품 • '24년 매출액 : 36억 9,579만 달러

* 매출액은 '24년 연평균 루블/달러 환율(USD 1 = RUB 92.4)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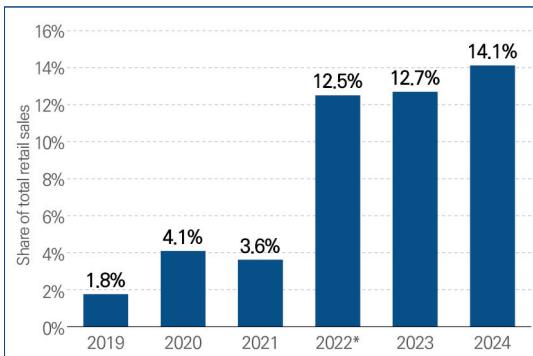


자료: 기업 홍보자료 등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급격히 확대

- (카자흐스탄) 비현금 결제 확산과 높은 인터넷 보급률이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견인
 - '24년 소매 전자상거래 규모는 약 6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 증가
 - '24년 기준 전체 소매 거래에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14.1%를 기록했고, 정부는 '30년까지 이 비율을 20%로 확대 목표

〈소매 거래에서 전자상거래 비중(%)〉



〈전자상거래 부문 및 채널별 매출(조 텅계)〉



자료: STATISTA

- (우즈베키스탄) 젊은 인구와 도시화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확산세
 - '24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15.4억 달러로 추산되며, 정부의 육성 정책(판매자 대상 우대세율 도입 등)과 모바일 결제 시스템 활성화 등으로 향후 더욱 발전 예상
 - '22년에 설립된 현지 온라인 쇼핑몰 UZUM이 4년 만에 월 이용자 수 1,600만 명을 달성하는 등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

※ 우즈베키스탄 온라인 쇼핑몰 UZUM社 개요



< UZUM 온라인광고 >



UZUM 픽업포인트



UZUM 물류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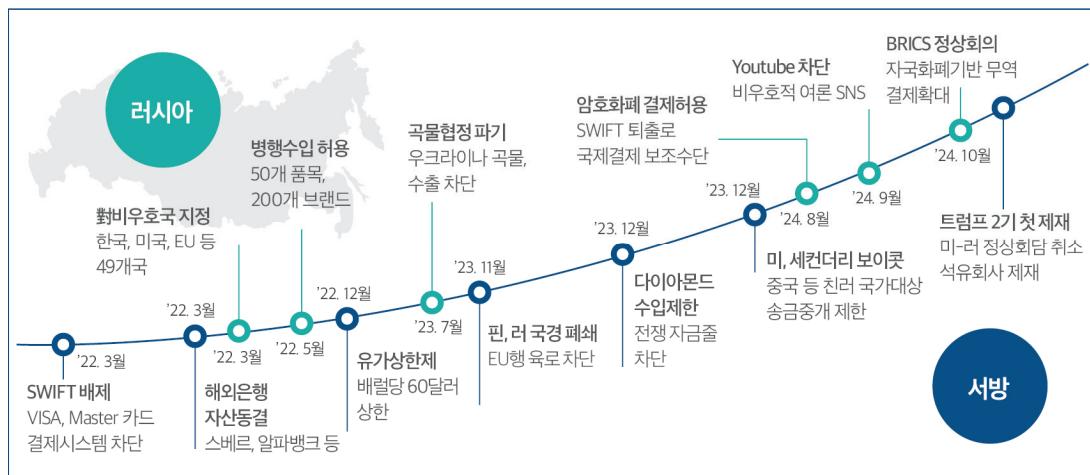
- 우즈베키스탄 내 픽업센터 1,000개 운영('25년 1월)
- 유통망 내 제품 약 100만 개 및 기업 14,000개사 등록('25년 1월)
- 월 이용자 수 1,600만 명(우즈베키스탄 인구의 약 40%)('25년 1월)
- App Store 및 Google Play 다운로드 앱 순위 1위 유지 중
 - * Click : 이용자 수 1,100만 명 / 월 결제 3,700만 건('24년 12월)
- 우즈베키스탄 최초 할부 결제 서비스 도입 / 우즈베키스탄 최대 물류단지 조성 예정

라. 지속되는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 현황과 대응('25년 10월 기준)

- (서방의 제재) '22년 2월 이후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금융·무역·투자·에너지·첨단기술 등 핵심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對러 제재를 단계적으로 부과, 러시아 기업·금융기관·개인에 대한 제재도 지속 확대
- (러시아의 맞대응) '22년 3월부터 러시아는 제재 참여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서방의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시행, 자급자족 및 수입대체화 가속화로 극복
 - 광범위한 제재는 러시아의 경제·산업 전반에 구조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우호국과의 다자주의 협력 강화, 수입대체화를 위한 자국 산업 발전 전폭 지원, 대체 물류노선 개발, 자체 국제 결제망 구축 등으로 대응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자료: KOTRA 모스크바무역관

□ 분야별 제재 및 대응

- 에너지·자원 분야
 - (주요 제재) 러시아 3대 자원(석유·가스·석탄)에 대한 제재 강화, △ 유가상한제 모니터링 및 2차 제재 강화, △ 주요 가스전·프로젝트 제재 추가, △ 주요 에너지社·선박·항구 제재, △ 러시아산 알루미늄·구리·니켈 수입 금지 등
 - (러시아 대응) 우호국(중국·인도·튀르키예 등)으로 대체 수출, 장기적으로는 △ 원유 시추·생산장비의 자국화, △ 북극항로·국제남북운송회랑 개발

• 금융 분야

- (주요 제재) 미국의 2차 제재 강화('24년 11월)로 우호국(중국·UAE·튀르키예 등)을 통한 자금 결제 차단 노력 및 제3국 연루 은행 추가 제재, G7과 EU는 역내 러시아 동결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지원 단행
- (러시아 대응) SWIFT 대체 러 자체 금융정보전송 시스템(SPFS) 활성화 및 BRICS 중심 新결제망 구축 노력, 다수 중개은행 연결 통한 송금 지속

• 물류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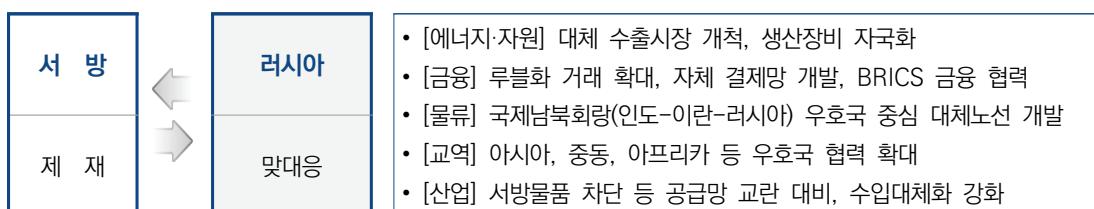
- (주요 제재) 주요 항구(Vostochny Port), 컨테이너사(Transcontainer), 조선소(Zvezda), 항공사 (Pobeda) 제재, 국경 폐쇄(핀란드) 및 축소(에스토니아) 등
- (러시아 대응) 인도·이란·아제르바이잔 협력 강화로 국제남북운송회랑 개발, 중국·UAE 협력 강화로 쇄빙선 운반선 개발 및 북극항로 활성화 노력

• 교역(상품 수출입)

- (주요 제재) 국가별 對러시아 수출통제 품목 지속 확대(미국 '24년 4월 등 수시, EU '25년 7월 對러 18차 제재 패키지 등), 이중용도품목 우회수출 차단
- (러시아 대응) 주요 제재 품목들의 우호국 경유 우회수입 노력, 국내 제조 어려운 물품은 병행수입 지속, 자국 기업 현지 생산화(수입대체화) 대폭 지원

• 민간 교류

- (주요 제재) 러시아인의 각종 국제대회 참여 제한, EU의 러시아인 대상 관광비자 발급 제한 논의 등 서방-러시아 간 민간 교류·왕래도 위축 추세
- (러시아 대응) 외국인 대상 sim 카드 판매 제한, 외국 sim 카드 로밍 제한, 입국 외국인 인터넷 사전 신고 의무화(ruleID) 등 외국인 통제 강화 조치



참고 1. 한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품목 현황

- (개요) 국제사회의 對러 수출통제 확대 공조 위해 '22년 이후 4차례 확대
 - HS 코드 6단위 및 품명·기술 사양 기준 1,402개 품목 통제 중으로 기계, 중장비, 반도체, 자동차·부품, 철강, 배터리 등 주력 품목 다수
 - 품목 및 사양 확인이 필요한 243개 품목(1~243번)과 HS code만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 판정이 가능한 1,159개 품목(244~1402번)으로 구분

對러시아 수출통제 품목 확대 경과

구분	1차('22년 3월)	2차 ('23년 4월)	3차 ('24년 2월)	4차 ('24년 9월)
대상품목	반도체, 컴퓨터, 센서, 항공우주 장비 등 57개	전자, 조선 등 798개	철구조물,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등 1,159개	공작기계 부품, 절삭기계, 광학기기 부품 등 1,402개
적용 기준	전략물자 관련 일반 산업재 승용차	품명·기술 사양 - 미화 5만 달러 초과	품명·기술 사양 HS 코드 6단위 배기량 2,000cc 초과	좌 동

- (상황 허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출 시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 무허가 수출 또는 러시아가 최종 목적지임을 알고 제3국으로 우회수출 시 행정처분 및 사법처벌 대상
 - 對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나, 아래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 결정 가능

- 선박 및 항공기 안전
- 민간 원자력 안전
- 인도적 지원(의약품, 식료품 지원에 한정)
- 우리나라 또는 별표 6의 가 지역에 설립된 기업이 소유하거나 지배(전부 또는 공동 지배)하는 회사가 최종 사용자인 경우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라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추가(시행일 기준)되기 전날까지 거래 계약이 체결된 물품 등인 경우
 - 1~57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2년 2월 27일까지 완료된 경우
 - 58~231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3년 4월 27일까지 완료된 경우
 - 232~1,159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4년 2월 23일까지 완료된 경우
 - 1,160~1,402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4년 9월 8일까지 완료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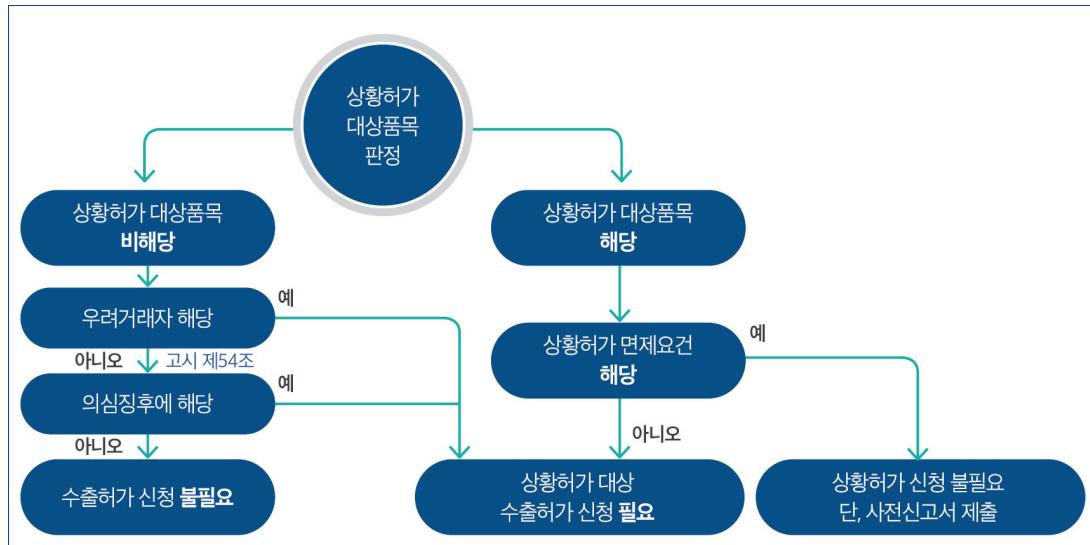
자료: 제36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4('25년 9월 19일 기준)

- (판정 절차) ① HS 코드로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품목은 고시에 명시된 HS 코드를 통해 바로 확인, 다만, HS 코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② 품명·기술사양 기준으로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품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기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통해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 * ②의 경우 ‘对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HSK 연계표’ 참조
- (상황허가 면제) 아래의 경우 상황허가가 면제되나, 사전에 수출신고서 제출 필요

- 정부 및 국제기구 지원
 - 대한민국 정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국제우주정거장(ISS) 관련 지원에 한정
- 소비자 통신제품 등 거래
 - 해당품목 별도 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참조
-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 전용 부품·부분품 등 거래
 - 다만, 설치확인서 제출(1회), 반기별 이행점검보고서 제출(연 2회) 등 최종 사용자 및 사용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빙 제출 필요

자료: 제36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4('25년 9월 19일 기준)

〈상황 허가 프로세스〉



자료: 무역안보관리원('25년 9월 19일 기준)

참고 2. 對러시아 금융 제재에 따른 대금 수취 애로('25년 10월 기준)

□ 주요 경과

- (러시아 SWIFT 배제) 러시아 주요 은행*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배제 및 거래 중단 조치로, 수출입 대금 결제, 송금, 환전 등 국제금융 업무에 차질 발생('22년 3월, 주요국)
* Rossiya, VEB, PSB, VTB, Sovcom, Sberbank, Rosselkhozbank, Moscow Kreditny Bank 등
- (금융제재 확대) 러 주요 은행 대상 거래 금지 등 제재 확대('23년 2월 등, 미국)
- (2차 제재 강화)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 발표 이후, 중국·튀르키예·UAE 국적 은행들의 러시아 은행들과의 거래 제한 조치 다수('24년 11월, 미국)
* 러시아 에너지 거래에 주로 활용되는 가즈프롬 은행을 비롯한 50여 개 은행 및 주요인사 15명 등 제재 대상에 추가('24년 11월 21일)
- (우호국 증개·수취 거부) 증개 역할을 해왔던 중국·튀르키예·UAE 은행들의 거래 거부로 인하여 위안화의 對한국 송금 중단 등 전체적 송금 여건 악화('24년~)

□ 러시아 바이어 대응 및 현황

- (루블화 송금) 일부 송금 가능했던 러시아 내 외국계 은행*들의 신규 계좌개설 중단 및 위안화 증개 거부 사례 급증으로 루블화 송금 사례 증가
* 외국계 은행 신규 계좌 개설 전면 중단 : Raiffeisen(오스트리아) ICBC(중국) 등
* 신규 계좌 개설 심사 강화 : Unicredit(이탈리아), OTP(헝가리), BoC(중국), CCB(중국) 등
- (비제재 은행 송금) 러시아 내 외국계 은행(비제재 은행)을 통해 달러화·위안화·루블화 송금 시도 중이나, 거래 참여자와 품목이 모두 제재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의심 정황에 해당되는지 등 확인 필요해 송금-수취 지체 애로 발생
- (송금 에이전시 활용) 송금 가능 루트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소재 다국적 물류기업 등이 시장 내 송금(혹은 공급) 대행 서비스를 출시, 별도 계약을 통해 수출대금의 대리 송금을 추진
- (결제 수단 변경) 일부 러시아 기업은 암호화폐로 소액 대금 결제, 러시아는 '24년 8월 암호화폐를 합법적 대외무역 결제 수단으로 허용

마. 러-우 사태 종전 협상 동향

□ 종전 협상 경과 및 주요 내용('25년 10월 기준)

- ('25년 2~3월) 미국이 협상 주도하며 러-우 사태 종식 협의 급물살
 - 미 트럼프 대통령-러 푸틴 대통령 90여 분간 통화로 협상계획 등 논의, 이어 고위급 회담 통해 외교공관 정상화, 경제협력 확대, 종전 논의 지속 등 합의(2월)
 - 이후 추가로 러-우 인프라·에너지 공격 30일간 중단, 포로 교환 등 합의(3월)

- (‘25년 5~7월) 3차에 걸친 러시아–우크라이나 고위급 회담 개최
 - 2차 협상 결과로 양국 휴전 조건 교환하였으나 영토·안보 등 핵심 조건에 대한 입장차 유지, 협상 난항인 가운데 트럼프가 러측에 50일 시한 통보 등 압박

2차 회담 후 공개된 양국 휴전 조건

구 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안) 포함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군 철수 (2안) 병력 이동·동원령 중단, 외국 군사 지원 중단, 대선 일정 확정, 하기 로드맵 합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조건적 육·해·공 전면 휴전을 통한 평화협상 분위기 조성
영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 점령지(크림,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의 국제법상 영토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년 이후 러시아 점령지 불인정 현재 전선 기준으로 휴전 후 영토 협상 가능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크라 군사동맹 불가입, 제3국 군사활동 금지 비핵화 및 우크라군 병력 상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크라이나 안보 및 주권 보장 군사적 중립 및 병력 제한 강요 불가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對러시아 제재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對러 제재 점진적 해제 가능 단, 합의 미이행 시 재부과(Snapback) 조건 포함
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피해배상 청구권 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 측 전쟁 책임 명시 및 배상 필요

- (‘25년 8월)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및 미–우크라–EU 회담 개최
 - 트럼프–푸틴 정상회담 통해 종전 협상 및 경제협력 확대 논의
 - 이후 미국–우크라이나–EU 다자간 회동,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보 참여 및 러–우 정상회담 추진계획을 확인하였으나 영토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EU 간 견해 상이

휴전 관련 주요국 입장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EU
현 전선 기준으로 즉각 휴전 후 평화협상 돌입	우크라이나가 러족의 영토 제안 수용 시 즉각 휴전 가능	현 전선 기준 휴전에는 동의하나, 영토 문제는 추후 논의

- (‘25년 10월) 미–러 부다페스트 정상회담 연기와 함께 미국은 신규 对러 제재 부과
 - 트럼프는 푸틴·젤렌스키와 연달아 접촉 후 미–러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였으나 양측 입장차 조율 난항으로 무산, 향후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
 - 회담 연기와 동시에 러시아 석유기업 대상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对러 제재 부과

II. 시장 분석

- | | |
|----------|----|
| 1. 시장 현황 | 34 |
| 2. 유망 산업 | 59 |
| 3. 협력 기회 | 65 |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 세계 최대 자원 보유 지역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 한국과는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로 상호 협력(Win-Win)이 가능하며 'KOREA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유망 시장으로 자리매김

가. 시장 특징

□ 경제 안보 확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

- (수출 효자) 러-우 사태 이후 대기업의 비즈니스 부진에도 불구하고, KOREA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유망 시장으로 자리매김
 - '21년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위국(27.5억 달러)에서 '23년 6위로 상승(30.9억 달러)하였으나, '24년 수출통제 품목 확대에 따라 9위(27.1억 달러)로 다소 감소
 - 그러나 비제재 품목을 중심으로 여전히 우리 중견·중소기업의 대러 수출 호조

2024년 중소기업 수출액 상위 10대 국가

(단위: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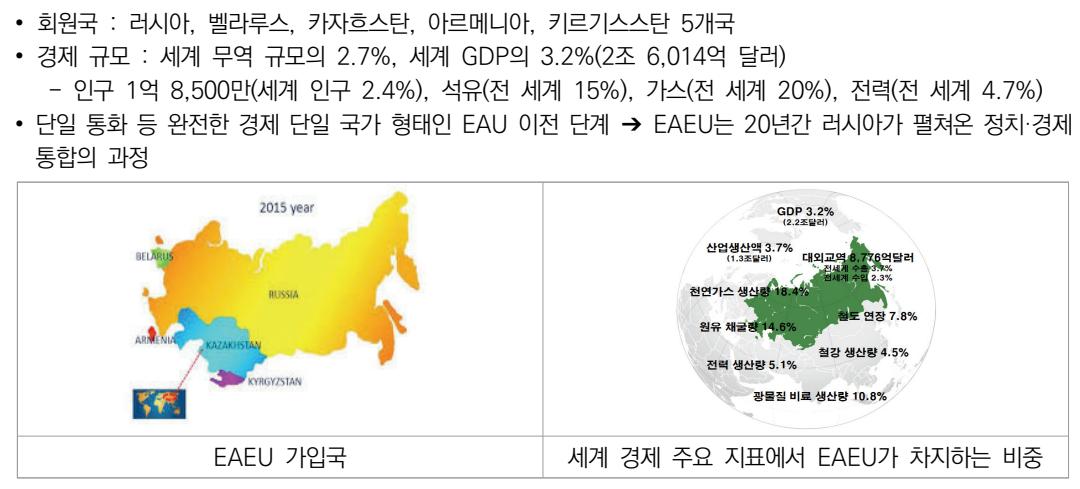
구분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	홍콩	인도	대만	멕시코	러시아	인니
수출액	187.4	183.9	109.9	96.9	40.3	33.9	30.0	27.5	27.1	25.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5.1)

- (핵심 자원 공급망) CIS 지역은 주요 자원의 최대 매장 지역으로 소부장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여 핵심 자원 수급이 가능한 주요 공급처
 - (러시아) 주요 자원 매장량 1~2위 국가로 구 소련 시대부터 리튬, 텉스텐, 니켈 등 첨단 산업 주요 자원의 유력 공급 기업 보유
 - (리튬) CMP, Halmek, (텅스텐) Wolfrom, (희토류) Solikamsk, (니켈) Norilsk nickel
 - (중앙아시아) '24년 우리 정부의 중앙아시아 순방 계기,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 및 희소금속센터 설립(몽골)

- (시장 탄력성)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CIS 5개국은 '15년 1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을 출범한 아래 단일 인증 제도, 무관세 통관 등을 시행 중으로, 한 국가로의 수출이 다른 국가로 이어질 수 있는 거대 권역을 형성
 -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 대응을 위한 '대체 공급로'로 EAEU 회원국 활용 중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 (지정학적 연결성) 러시아는 정치·외교·경제 강국이며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통로로서 전략적 가치 상승
 - (러시아)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 강국으로 아시아-유럽을 잇는 해상·항공의 교통 요지이자 미래 운송 루트로 북극항로 개발의 핵심 국가
 - (중앙아시아) 러시아, 미국 및 중국 등은 각기 중앙아시아를 자국의 영향권으로 유지 또는 포섭을 위해 노력 중인 전략적 요충지

〈러, 미, 중국의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외교활동〉

- (러시아) 서방의 경제 제재 상황 속 러시아 영향권 하에 있는 중앙아시아를 전략적 우회 기지로 활용
 - ('25년 5월) 전승절 기념행사에 중앙아시아 대통령 초청 등
 - ('25년 10월) 러시아-중앙아시아 정상회담 개최
- (미국) 중앙아시아 등 주변국 친서방화를 통해 러시아 고립 및 对러시아 경제 제재 효과 극대화
 - ('25년 9월) 연례 C5+1 외무장관 회담 개최
-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및 우라늄, 가스 등 자원 확보 위한 중앙아시아와 협력 강화
 - ('25년 6월) 제2차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담 개최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 (상호 보완적 경제) CIS 국가는 원유·가스 등 에너지 의존 경제 구조를 보유하는 반면 제조업이 미발달해 공산품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 한국과 상호 원원(Win-Win)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보유
 - CIS 국가는 한국에 원유, 가스, 농수산물 등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국은 CIS 국가에 공산품 수출국이자 산업 다각화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
- (K-Lifestyle 확산) 몽골, 중앙아시아에 이어 러시아, 코카서스 지역으로 한류가 확산되어 소비재·식품 소비 수요 증가 중이며 최근에는 콘텐츠로 확산
 - (식품) 현지 아시아 식품 대중화 현상과 한류 드라마 영향으로 한국 식품 선호도 증가세 뚜렷
 - (미용) 한류 스타 인기, K-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한국 기능성 화장품 및 뷰티 제품 인기
 - (생활소비재) 보건 및 웰빙 트렌드 확산에 따른 고기능성 및 네이처/그린 생활 화학제품 수요 증대
 - (콘텐츠) Netflix 등 서방 콘텐츠 배급 중단 이후 한국산 드라마 및 영화에 대한 러시아 3대 OTT(Kinopoisk, Ivi, Okko) 플랫폼의 수입 수요 증가

〈CIS 지역의 전략적 가치〉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 주요 인증

- EAC 인증(Eurasian Conformity)
 - EAEU(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단일시장에 적용되는 통합 인증으로 EAEU 기술 규정(TR CU)을 통해 세부 사항 규정
 -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식품, 화장품, 의약품, 장난감, 포장재 등 다수 품목이 해당되며, 지속적으로 대상 품목 확대 중
 - 품목별 규정에 따라 적합성 선언(Doc) 또는 적합성 인증서(CoC) 발급 필요

※ EAC 인증 유형

-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 자율 선언 형태로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안전·위생 위험이 적은 소비재에 주로 적용
-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 안전성·위험도가 높은 산업재나 특수 제품에 주로 적용되며, 비교적 심사·시험 절차가 복잡

- 러시아 자체 인증(기존 EAEU 내 국가별 인증 존재)

- 국가등록증(SGR) : 식음료, 생활화학제품, 일부 건자재 등 위생 관련 제품에 대해 취득 요구, Rospotrebnadzor(소비자 권리 보호 감독청), Roszdravnadzor(보건감독청) 등 러시아 내 품목별 담당 기관 통한 등록 필요
- GOST-R : 과거 러시아 국가 표준 인증으로, 현재는 대부분 EAC로 대체되었으나 일부 자발적 인증 형태로 활용 중

EAEU·러시아 주요 필수 인증 종류

연번	문서 명칭	발급기관	유효기간	발급기간
1	적합성 인증서 (Certificate of Conformity = CC EAC) (Сертификат соответствия)	각 회원국 내 국가 인증기관	1년, 3년, 5년	3주 이상
2	적합성 선언 증명서 (Declaration of Conformity = DC EAC) (Деклар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ии)	각 회원국 내 국가 인증기관	1년, 3년, 5년	3일 이상
3	국가등록증(SGR)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Rospotrebnadzor (러 소비자 권리 보호 감독청), Roszdravnadzor (러 보건감독청) 등	성분 변경 등 특이사항 없을 시 유효기간 없음	3주 이상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

- 의무 라벨링 Chestny Znak(체스니 즈낙)

- (개요) 러시아 정부가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17년 도입한 라벨링 제도로 EAEU 역내에서 전방위적으로 시행 중, 주류·유제품·의약품·화장품·담배 등 소비재를 넘어 전자제품·자동차 부품·건축자재 등으로 확대 중(역내산에도 적용)



- (발급 절차) 러시아 내 수입자·제조사가 책임을 지니며, 현지 사업자가 신청하여 Data Matrix 형태의 코드 발급, 생산 공정 또는 현지 통관 전에 부착

체스니 즈낙 라벨링 주요 절차

단계	절차	비고
1	제조사·수입기업 정보 등록	전자서명 발급 후 등록 가능 체스니 즈낙 관리
2	제품 정보 등록	GTIN, 제품명, 원산지, 포장 유형 등 정보 입력 시스템
3	코드 신청·발급	제품별 코드 수령, 코드 당 0.5루블(VAT 별도) 과금 (ГИС МТ)에서 진행
4	코드 인쇄·부착	포장지 사전 인쇄, 직접 인쇄, 스티커 부착 중 선택
5	유통 정보 전송	출하, 수입, 판매 등 각 단계별 정보 실시간 전송
6	판매 시 출고처리	판매 위해 POS 단말기 스캔 시 코드 비활성화

- (부착 방식) 러시아 정부는 포장지 사전 인쇄 방식을 권장하지만, 수입제품의 경우 현지 인프라 제약 등으로 인해 스티커 또는 직접 인쇄 방식이 일반적

연번	방식	내용
1	포장지 사전 인쇄	제품 포장지에 코드를 미리 인쇄해 생산라인에 투입
2	현장 직접 인쇄	제조 공정 중 레이저·잉크젯 프린터로 코드 직접 인쇄
3	스티커 부착	출력된 코드를 스티커 라벨 형태로 부착

※ 러시아 라벨링 에이전시 D사 인터뷰

- 해외 생산지에서 부착하는 △ 통관 절차 간소화, △ 러시아 도착 즉시 유통 가능 등 장점이 존재하나, 해외 생산라인 설비투자 등 초기 진입장벽이 존재
- 러시아 현지 창고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 제품 구성 변경이 잦거나 △ 소규모로 납품하거나 △ 복수 브랜드를 취급하는 경우 유리하며, 오류 수정이 용이하나 처리시간·비용 증가 가능
- 초기에는 현지에서 라벨링을 진행해 익숙해진 뒤, 안정화된 후 공정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

나. 무역

□ 수출입 동향

- (수출 규모) '25년 1~8월 CIS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
 - 러-우 사태 및 對러 제재 여파로 러시아발 수출이 특히 위축세
 - 이에 더해 '25년 들어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CIS 주 수출품인 에너지·원자재 수익성이 대체로 감소
- (수입 규모) '25년 1~8월 CIS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
 - 對러 제재 불구, 병행수입·우회수입 등을 통한 공급망 불안정 해소 노력 지속
 - CIS 각국 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수입품 소비 수요도 확산세

CIS 역외 수출입 규모 동향(몽골 포함)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역외수출	6,526	△ 20.3	6,755	3.5	3,904	△ 4.3
역외수입	4,617	3.3	5,561	20.4	3,376	3.2
무역수지	1,909	-	1,194	-	528	-
총 교역	11,143	△11.9	12,316	10.5	7,280	△ 0.9

자료: IMF('23-'24년), Global Trade Atlas, 러시아 관세청('25년 1~8월) 자료 종합(자료 검색 : '25년 11월)

- (교역구조) CIS 전체 대외교역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는 제재 여파로 전체 대외교역 위축, 주변국의 대외교역은 신장세
 - '25년 1~8월 러시아의 총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4,421억 달러 기록
 - 중앙아시아가 대체 수입 통로로 부상하면서 대외 무역액이 증가하였고, 특히 키르기스스탄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

CIS 국별 대외교역 변화(몽골 포함)

(단위 : 억 달러, %)

순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교역액	증감률	교역액	증감률	교역액	증감률	교역액	증감률	교역액	증감률
1	러시아	7,866	27.5	8,506	8.1	7,101	△16.5	7,169	1	4,421	△3.2
2	카자흐스탄	993	30.7	1,081	8.8	1,286	19	1,247	△3.2	771	△0.9
3	우크라이나	1,320	31	902	△31.6	910	0.9	1,016	11.6	596	△5.2
4	우즈베키스탄	357	18.9	347	△2.9	457	31.9	429	△6.1	356	29.9
5	키르기스스탄	132	98.7	201	52.5	300	49.2	362	20.5	264	39.0
6	아제르바이잔	312	54	477	52.9	361	△24.2	371	2.1	235	10.2
7	몽골	145	32.8	158	8.9	209	32.3	233	11.2	137	△11.9
8	투르크메니스탄	130	26.2	167	28.5	174	4.2	162	6.9	108	1.3
9	벨라루스	695	31.6	221	△68.1	236	6.9	217	△8.6	106	△19.0
10	조지아	123	23.8	150	21.8	159	6.3	179	12	101	△11.8
11	몰도바	111	32.1	108	△2.7	109	0.9	116	6.4	80	8.5
12	타지키스탄	58	31.8	61	5.2	76	24.6	78	2.6	58	11.6
13	아르메니아	73	22.3	67	△90.8	87	28.8	102	17.9	47	△26.0

자료: 러시아 관세청(러시아), Global Trade Atlas(기타 국가) 자료 종합('25년 11월)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수출국) 중국('24년 31.5%), 인도(11.7%) 등 러 우호국 중심으로 재편
 - 전년 대비 이탈리아(△ 21.1%), 스위스(△ 28.5%), 영국(△ 30.4%) 감소하는 등 대 유럽 수출 대폭 감소

CIS 지역의 10대 수출국('24년, 몽골 포함)

(단위 : 억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액	증감률	비중	순위	국가명	수출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1,816	2.8	31.5	7	영국	129	△30.4	2.2
2	인도	675	9.7	11.7	8	독일	122	2.7	2.1
3	튀르키예	555	△5.5	9.6	9	브라질	116	7.1	2.0
4	카자흐스탄	217	10.1	3.8	10	네덜란드	114	12.1	2.0
5	이탈리아	199	△21.1	3.5
6	스위스	134	△28.5	2.3	13	한국	89	△34.2	1.5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11월)

- (수출 품목) 원유, 곡물, 석탄, 비료 등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음
 - 서방 제재에 따라 러시아산 석유, 관련 제품 對EU 공급 중단('23년 12월), 유가 상한제 및 '그림자 선단' 감시 강화 등으로 에너지 수출은 꾸준히 감소세
 - * 러 에너지(HS Code 27) 수출 : ('22년) 3,837억 달러 → ('24년) 2,424억 달러, 중국, 튀르키예, 인도로 수출

CIS 지역의 주요 수출 품목 동향(몽골 포함)

(단위: 억 달러, %)

2024년				2025년 8월 누계			
순위	품목명(HS코드)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HS코드)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	6,755	3.5		총 수출	3,904	△ 4.3
1	광물성 원료(27)	3,263	△ 2.4	1	광물성 원료(27)	1,912	△ 12.2
2	귀금속(71)	425	△ 19.4	2	귀금속(71)	325	53.5
3	곡물(10)	225	△ 9.7	3	광슬래그(26)	165	23.2
4	광슬래그(26)	212	19.8	4	비료(31)	118	4.8
5	철(72)	195	△ 2.5	5	철(72)	110	△ 16.3
6	비료(31)	173	△ 6.0	6	구리(74)	88	21.8
7	동물성 유지(15)	128	6.8	7	알루미늄(76)	79	34.6
8	구리(74)	113	5.0	8	동물성 유지(15)	73	△ 10.9
9	무기화합물(28)	92	14.5	9	곡물(10)	59	△ 62.5
10	알루미늄(76)	91	△ 4.7	10	무기화합물(28)	49	△ 18.1

자료: Global Trade Atlas('25.11)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수입국) '24년 기준 중국(45.2%), 튀르키예(6.5%) 순이며, 한국(2.7%)은 6위
 -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대서방 교역 증가(러시아의 우회수입 경로로 활용 추정)

CIS 지역의 10대 수입국('24년, 몽골 포함)

(단위 : 억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액	증감률	비중	순위	국가명	수입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1,999	5.3	45.2	6	한국	121	△ 8.3	2.7
2	튀르키예	287	△ 3.4	6.5	7	이탈리아	113	3.4	2.5
3	독일	249	△ 3.0	5.6	8	네덜란드	76	6.6	1.7
4	폴란드	224	△ 1.6	5.0	9	영국	68	135.3	1.5
5	카자흐스탄	160	△ 2.1	3.6	10	인도	66	21.8	1.5

자료 : Global Trade Atlas('25년 11월)

CIS 주요국의 대서방국가 수입 변화

(단위 : 억 달러, %)

구분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2021년	2024년								
러시아	63	5	314	82	75	22	90	46	94	30
카자흐스탄	8	11	16	32	5	13	5	13	8	10
우즈베키스탄	4	4	6	12	1	4	4	5	1	3
키르기스스탄	0.3	1	0.5	7	0.3	1	0.2	4	0.2	3
아르메니아	0.4	2	2	5	0.5	1	3	4	0.4	1
아제르바이잔	1	3	3	7	1	2	0.2	5	0.9	1

자료 : Global Trade Atlas('25년 11월)

- (수입 품목) 자동차 부품, 의약품,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수입이 상당수 차지
 - 대부분 CIS 국가는 자원 중심 경제구조로, 공산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

CIS 지역의 주요 수입 품목 동향(몽골 포함)

(단위: 억 달러, %)

2024년				2025년 8월 누계			
순위	품목명(HS코드)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HS코드)	수입액	증감률
-	총 수입	5,561	20.4	-	총 수입	3,376	3.2
1	자동차(8703)	429	11.2	1	자동차(8703)	200	△ 20.5
2	의약품(3004)	141	1.9	2	의약품(3004)	86	0.5
3	무선통신기기(8517)	102	3.5	3	무선통신기기(8517)	56	△ 14.0
4	자동차 부품(8708)	89	△ 1.6	4	자동차 부품(8708)	52	△ 2.1
5	석유제품(2710)	85	3.8	5	석유제품(2710)	49	△ 12.3
6	자동자료처리기(8471)	72	4.5	6	금(7108)	42	55.4
7	화물자동차(8704)	59	2.0	7	자동자료처리기(8471)	34	△ 27.6
8	트랙터(8701)	49	438.7	8	면역 물품(3002)	30	19.3
9	금(7108)	47	△ 27.6	9	타이어(4011)	25	1.4
10	면역 물품(3002)	46	3.3	10	기타 품목(9804)	24	149.4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11월)

□ 對韓 교역 동향

- (교역 추이) 韓-CIS 교역은 '22년 러-우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5년 들어 종전 기대감, 제재 여건 적응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22년 이후 對러시아 수출이 감소하고 러시아산 석유, 가스 수입이 축소되며 전체 교역액도 크게 감소
 - 한국의 對CIS 역내 최대 교역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순이며 이 4개 국가의 교역이 전체 CIS 교역의 88%를 차지
 - *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 비중은 ('22년) 67% → ('24년) 54%, → ('25년 1~9월) 48%로 지속적 감소
 - '24년 기준, 對러시아 수출 우회 통로인 키르기스스탄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전년 동기 대비 +52.4%)하여 교역 순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추월

최근 3개년 CIS 내 대한 교역액 상위 4개국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누계		
	수출	수입	교역	수출	수입	교역	수출	수입	교역
전체 CIS	13,215	13,459	13,215	12,122	8,854	25,337	10,626	6,230	35,963
4개국 소계	11,643	12,552	11,643	10,380	8,152	22,023	9,081	5,878	31,104
러시아	6,133	8,892	6,133	4,529	6,873	10,662	3,017	5,129	13,679
카자흐스탄	1,968	3,568	1,968	2,345	1,260	4,313	2,346	730	6,659
키르기스스탄	1,172	2	1,172	1,786	3	2,958	2,467	3	5,425
우즈베키스탄	2,370	90	2,370	1,720	16	4,090	1,251	16	5,341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10월)

- (교역 규모) 한국의 '25년 1~9월 對CIS 교역 규모는 16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
 - * 최근 3년간 교역액(억 달러) : ('23년) 267억 → ('24년) 210억 → ('25년 9월) 168억
- (수출) '25년 1~9월 한국의 對CIS 수출은 10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
- (수입) '25년 1~9월 한국의 對CIS 수입은 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
- (무역수지) 對러 원자재 수입 축소로 '24년 무역수지는 11년 만에 흑자 전환

한-CIS 교역 추이(몽골 포함)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141	20.3	117	△17.0	132	13.0	121	△8.3	106	19.1
수입	203	62.8	206	1.1	135	△34.5	89	△34.2	62	△12.7
총교역	344	42.2	323	△6.3	267	△17.3	210	△21.4	168	5.0
수지	△ 62	-	△ 89	-	△ 3	-	32	-	44	-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10월)

- (주요 교역 품목) 한국은 CIS 지역에 소비재, 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CIS 지역으로부터는 자원, 에너지 등을 수입하는 구조
 - (수출) 상위 10대 수출 품목 중 승용차, 자동차 부품, 화장품, 기타 자동차 등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 '25년 9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 +51.8%, 자동차 부품 +20.2%, 화장품 +19.4%, 기타 자동차 +187.9% 등 수출 증가율 기록

한국의對CIS 10대 수출 품목 동향(몽골 포함)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9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	총 수출	12,122	△8.3	-	총 수출	10,626	18.5
1	승용차	4,127	11.7	1	승용차	4,569	51.3
2	자동차 부품	1,083	△30.9	2	자동차 부품	969	20.2
3	화장품	749	6.7	3	화장품	651	19.4
4	합성수지	457	5.1	4	기타 자동차	285	187.9
5	윤활유	349	△8.9	5	합성수지	253	△29.5
6	건설중장비	269	△53.5	6	윤활유	215	△21.8
7	의료용 기기	244	10.9	7	건설중장비	208	△4.1
8	타이어	213	26.8	8	의료용 기기	171	1.8
9	기타 플라스틱 제품	195	1.0	9	화물자동차	170	17.9
10	원동기	169	20.7	10	타이어	141	△12.4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10월)

- (수입) 유연탄, 원유, 수산물 등 대부분 품목 수입이 감소, 반면 천연가스, 알루미늄 등의 수입은 유지·증가

* 특히, 수입 1위 품목이었던 원유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로 수입이 급감

한국의 CIS 10대 수입 품목 동향(동글 포함)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9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	8,854	△34.2		총 수입	6,230	△12.2
1	유연탄	2,105	△47.0	1	유연탄	1,507	△6.0
2	천연가스	1,243	17.5	2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979	63.4
3	원유	971	△70.2	3	천연가스	893	△1.2
4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869	27.8	4	원유	529	△45.5
5	우라늄	714	25.5	5	우라늄	361	△49.4
6	게	386	△15.7	6	게	295	13.9
7	사료	294	△11.4	7	곡류	227	22.7
8	곡류	250	△31.5	8	무연탄	125	△17.8
9	합금철	202	△18.9	9	합금철	114	△32.9
10	무연탄	179	△60.7	10	명태	97	△4.0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10월)

• 한국의 CIS 내 수출시장 점유율

- 러-우 사태 불구, 서방 제품 수입 감소로 인한 점유율 공백, 현지 한류 확산 등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은 '22년 이후 3년 연속 CIS 지역의 6대 수입국 지위를 유지 중
- (소비재) 비제재 품목인 동시에 한류의 직접 영향권인 화장품('24년 1위), 식품(8위) 등 소비재의 수출이 매년 안정적으로 증가
- (의료) 서방 제품 대비 저렴한 가격과 중국산 대비 뛰어난 품질을 바탕으로 '24년 CIS 수출시장 점유율 의료기기 4위, 임플란트 3위 등 차지
- (자동차)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현지 긍정적 인식 확산, '24년 기준 자동차 2위, 부품 2위, 타이어 2위, 윤활유 7위 등 높은 점유율 기록

□ 对CIS 주요 수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CIS 진출전략 : 자동차 부품 진출기업 W, Y사(對러시아 수출)

- 제품의 비교우위 : 러-우 사태 이전, 러시아 내 솔라리스 등 한국 차량은 품질과 A/S에 대한 대중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시장 내 매출 1위 기록
- 필수 인증 : EAC 인증(EAEU 공통 인증)
- 성약 소요기간 : 3개월
- 발굴 경로 : 주요 생산 부품 상황허가 취득 절차 애로 발생에 따라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으로 지원 요청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W사·Y사), 현지 잔류를 위해 지속 생산라인 가동 추진 중 한국에서 지속 부품 반입이 시급한 상황이나 최종 납품처인 ARG(현대 자동차 공장 인수기업) 지배구조 상 SDN(개인) 위반에 대한 우려로 절차 중단 위기
 - 무역관 주도로 기업 신용DB 및 지배구조 확인서 수령 등 산업부 안보과와 핫라인 지원하여 상황허가 최종 승인 획득
 - AGR(전 현대자동차 공장) 꿀 협력사 12개사 진출기업의 중대 리스크 해소 사례('25년 9월)



성공 사례로 보는 CIS 진출전략 : 라면조리기계 C사(對러시아 수출)

- 제품의 비교우위 : 간편한 사용법, 한국에서의 높은 인지도(팝업스토어, 한강 설치 경험), 한류 인기로 최근 라면조리기계 수요 증가
- 필수 인증 : EAC 인증
- 성약 소요기간 : 3개월
- 바이어 발굴 경로 : '25년 2월 모스크바 식품 전시회(ProdEXPO) 방문 유치하여 국내 기업과 매칭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해당 바이어는 그동안 자사 주력 품목인 젤리·사탕에 주력해 왔으나, 사업 확장을 위해 품목 다변화 고민
 - ProdEXPO 한국관에 방문하여 현장에 전시되어 있던 즉석라면기계를 발견한 바이어는 SNS에서 본 '한강 라면'을 떠올리게 되었고, 무역관으로 온라인 상담 주선 요청
 - 바이어는 러시아 지방 도시에 한국식 라면 카페 개업 준비 중이며 '25년 5월 초도 물량 계약
 - 국내 C사는 러-우 사태로 거래를 망설였지만, 바이어사가 한국과 거래 경험이 있다는 점과 러시아 내 한국 음식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한 후 온라인 미팅 성사
 - 이후 해당 제품에 러시아 대형 유통망이 관심 보이며 판로 확대 중



성공 사례로 보는 CIS 진출전략 : 건강기능식품 G사(對러시아 수출)

- 제품의 비교우위 : 건강기능식품의 카자흐스탄 시장 성공 진출 경험 有, 취득이 까다로운 러시아 국가 인증 보유
- 필수 인증 : EAC 인증, 러시아 국가등록증
- 성약 소요기간 : 약 10개월
- 바이어 발굴 경로 : SPARK 등 러시아 기업 DB 유료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적합 바이어 발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G사는 러시아 시장 진출에 관심이 많아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국가인증을 취득한 상태였음
 - 국가인증 취득에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에 이 사실을 안 바이어들이 관심을 보였음
 - 또한, 국내 기업은 CIS 시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의무 라벨링인 'Chestny Znak' 부착 등 바이어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 통상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상대적으로 CIS 시장 진출이 어렵지만, 바이어의 적극적인 관심과 무역관의 소통 지원으로 까다롭고 다양한 대내외 요구 사항들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었음



성공 사례로 보는 CIS 진출 전략 : 의료용 로봇 제조기업 A사(對카자흐스탄 수출)

- 제품의 비교우위 : 한국 최초로 복강경 수술로봇을 생산 및 상용화하였으며, 외과 의사를 위한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 전문 기술팀의 지원을 통한 정기적인 유지 보수 서비스 등을 제공
- 필수 인증 : State registration of medical devices(medical equipment)
- 성약 소요기간 : 약 1년
- 바이어 발굴 경로
 - 수출24 서비스-사업파트너 연결 지원을 통해 바이어(의료기기 유통사) 발굴
 -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은 무역관의 잠재 바이어 발굴 서비스를 통해 현지 의료기기 전문 바이어와 성공적으로 매칭되었으며, 무역관의 밀착 지원을 기반으로 현지 국립 병원 3곳과 기기 납품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둠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24년 기준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의료기기 수입국 가운데 6위이며, 우수한 기술력 대비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입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의료 교육·서비스 패키지화의 효과 : 단순 기기 판매를 넘어 외과의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기술팀의 유지보수 지원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현지 의료진의 신뢰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 결합형 진출 모델로 작용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



성공 사례로 보는 CIS 진출전략 : 의약품 A사(對우즈베키스탄 수출)

- 제품의 비교우위 : 한국산 의약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 Fast-track 활용 협약 등록기간 단축
- 필수 인증 : GMP 인증
- 성약 소요기간 : 6개월
- 바이어 발굴 경로 : 바이어 인콰이어리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OTC 의약품 포함 의약품 수요가 많아졌는데 한국산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음
 - FAST TRACK 제도를 활용할 경우, 의약품 등록시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시킬 수 있어 수출 달성을 가능성이 증대



성공 사례로 보는 CIS 진출전략 : 의료기기 M사(對아제르바이잔 수출)

- 제품의 비교우위 : 한국, 영국, 중국제품이 경합, 영국은 현지 인지도 면에서 우수했으나 한국 제품 대비 가격 2배 이상, 중국 제품은 가격 면의 우위가 있으나 품질 및 납기 문제 등으로 리스크 존재 → 종합적인 가성비 측면에서 한국 우위
- 필수 인증
 - 보건부 산하 의약품 분석전문센터(Aalytical Expertise Center)에 수출 송장 1건 당 각각 등록 필수
 - (필요서류) 원산지증명서, ISO 13485 또는 CE93/42, 수출송장, 판매계약서 등
- 성약 소요기간 : 약 5개월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아제르바이잔 바이어는 대부분 정부 공공벤더로, 구매 결정을 위해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바, 상세 거래조건에서 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요인 필요 → 이를 위해 경쟁국이 제시하는 조건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비교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맞춤형 조건 제시 필수
 - 작동 관련 교육, A/S 등이 반드시 수반되는 품목인바, 거래 유망 바이어의 방한 초청이 매우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됨

□ 주요 경쟁국 동향

- (중국)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시에 다수 CIS 국가와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은 CIS 수입시장 내 점유율을 적극적으로 확대
 - '24년 기준, △ 승용차 55.0%, △ 휴대전화 55.8% 등 다수 품목에서 과반 점유율 차지
 - 특히, 러시아의 경우 이들 품목의 중국산 점유율이 80~90%까지 상승
- (튀르키예)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의 對우호국 교역이 급증하며 CIS 시장 내 2대 수입국으로 부상
- (독일) 러-우 사태로 인한 對CIS 교역 위축에도 불구하고, △ 차량,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품목의 수출을 지속하며 3대 수입국 지위 유지

CIS 수입시장 내 한국 및 경쟁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국가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중국	37.9	46.1	45.2	46.3
튀르키예	7.2	7.2	6.5	6.4
독일	8.2	6.2	5.6	6.0
한국	3.4	3.2	2.7	3.3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11월)

□ CIS 각국의 주요 대외 수입 규제·애로

- (러시아) '22년 이후 한국 등 '비우호국' 대상 특별관세 지속 확대·인상 중, 품목별로 모든 비우호국 또는 특정 국가에 선별적으로 적용
 - (화장품·욕실제품류) 치약·면도제품·샴푸·세제·립스틱 등에 최대 35% 적용, '25년 1월부 한국산 샴푸(HS Code 3305.10), 헤어래커(3305.30), 치약(3306.10) 등에 부과
 - * 한편, '25년 5월 일부 화장품·향수 특별관세 확대 시 한국을 비롯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제외하며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일부 제고
 - (주류) 맥주·독주류·와인 등에 관세 인상, 특히 맥주는 한국산도 포함되며 리터당 0.1유로(기준) → 1유로('25년 1월) → 1.5유로('25년 9월)로 단기간 내 대폭 인상
- (우즈베키스탄) WTO 미가입으로 인한 불확실성 및 차등 관세 정책
 - 자국의 수급 여건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무역장벽을 탄력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종종 충분한 사전 통지 없이 시행
 - 세관에 적합한 제품 HS Code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관세율이 책정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
 -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신규 생산설비, 생산용 원자재 등에는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완성품 수입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

다. 산업

□ 산업 특징

- 대부분 CIS 국가는 자원 중심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역외 수출에서 광물성 원료 및 귀금속이 매년 과반의 비중('25년 8월 기준 57.3%) 이상을 차지
- 경제구조 다변화를 위해 러시아 중심으로 기계·전자·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 경제 제재, △ 고금리, △ 기술개발 저조 등 요인으로 산업 생산은 매년 등락을 거듭

CIS 주요국 연도별 산업 생산 증가율 추이

(단위: %)

국가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누계
러시아	0.6	3.5	4.6	0.7
카자흐스탄	1.2	4.3	3.2	7.4
우즈베키스탄	5.2	6.0	6.7	6.8
아제르바이잔	△1.1	△1.1	1.1	△1.0
벨라루스	△5.4	7.7	5.4	△0.8

자료: 각국 통계청 자료 종합(검색: '25년 10월)

- 러-우 사태 이후 정부 주도의 전력·물류 기반 인프라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건설업 등 관련 산업이 성장세를 유지
- 농업 분야에서는 밀, 보리 등 주요 곡물과 해바라기 등 유지작물 생산에서 세계 공급망의 핵심 축을 형성하는 등, 스마트팜 등 기술집약형 농업으로의 전환 추진 가속화
- 반면, 코카서스 3국(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은 전체 인구 1,700만 명으로 내수 기반이 작아 서비스·관광업이 발달

□ 현지 주요 산업 최근 동향(각국 통계청 및 언론보도 종합)

- (자동차 산업) 러-우 사태 여파로 역내 자동차 생산 중심이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로 이동하는 공급망 재편 가속화
 - (러시아) 러-우 사태 이후 △ LADA 등 자국 브랜드 육성('24년 생산 58만 대, +45%), △ 중고차 수입 확대('21년 13만 대 → '24년 39만 대), △ 중국차 수입 증대('21년 15억 달러 → '24년 152억 달러) 등으로 글로벌 브랜드 철수에 대응
 -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탈 글로벌 브랜드(현대, 기아, Skoda 등)의 생산기지를 유치하며 최근 자동차 산업이 크게 성장, '26년 생산량 연 50만 대 목표

- (우즈베키스탄) '25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량이 약 32만 대(전년 동기 대비 +9.7%)를 기록하는 등 자동차 조립 생산이 특히 활발하며, '30년까지 자동차 생산 연 100만 대 추진
- (아제르바이잔) 자국 내 생산량이 미미해 수입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24년 약 9.2만 대(연간 +4.1%) 의 자동차가 신규 수입되었으며, 최근 중국차 수입이 급증하여 전체 수입의 약 30% 가량을 차지
- (화장품 산업) 수입 비중이 높으며 매년 시장 규모가 꾸준히 확대
 - (러시아) '24년 시장 규모는 약 119억 달러(+16.8%)에 달하며, 최근 러시아 브랜드 판매가 약 70% 가량 증가하는 등 자국화 노력 활발
 - (카자흐스탄) '24년 시장 규모 화장품 2.8억 달러(최근 5년간 +71%), 스킨케어 5.6억 달러(최근 5년간 +33%)를 기록하는 등 관련 산업이 꾸준히 성장 추세이며, 90% 가량을 수입에 의존
 - (우즈베키스탄) '24년 화장품 시장 규모는 1.16억 달러로 추산되며, 연평균 성장률 5.3%로 '30년까지 1.5억 달러로 확대 예상
 - (아제르바이잔) '25년 화장품 시장 규모는 1.1억 달러로 전망되며, 한국·중국·프랑스 등 수입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남성 등 새로운 타깃층이 형성되며 시장 저변 확대 전망
- (의료기기산업) CIS 국가들의 다소 저조한 제조업 수준으로 수입이 꾸준히 증가
 - (러시아) '24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92억 달러에 달하며, 러시아 정부는 수입대체 정책을 추진하나, 여전히 약 70%의 높은 수입의존도를 기록
 - (우즈베키스탄) '24년 의료기기·의약품 수입 규모는 17억 달러(연간 +8.1%)로, 제조업이 미발달한 현지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향후 수입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아제르바이잔) '25년 시장 규모는 약 1.8억 달러로 예상되며, △ 정부의 공공병원 현대화 추진, △ 민간 클리닉 신설 증가 등 꾸준한 시장 성장 예상
 - (벨라루스) 특히 치과 기자재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25년 7천만 달러를 기록한 시장 규모는 '28년까지 연평균 약 7.5% 성장 전망
- (건설업) CIS 각국의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매년 건설시장 성장세
 - (러시아) '24년 건설시장은 약 1,800억 달러(연간 +2.1%) 규모에 달하며, 고금리 등 다소 불리한 여건에도 러시아 정부의 지방 인프라 투자 등에 힘입어 시장 확대
 - (카자흐스탄) '24년 시장 규모는 약 136억 달러(연간 +14.9%), '25년 상반기 약 70억 달러(연간 +18.4%)로 △ 정부의 인프라 확충 정책, △ 주택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매년 큰 폭으로 성장세
 - (우즈베키스탄) '2022~2026 개발 전략'에 힘입어 건설 공사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4년 시장 규모는 약 185억 달러(연간 +8.5%)를 기록
- (농업) CIS 국가들은 인구 대비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풍부한 농지를 보유
 - (러시아) 세계 곡물 생산량 4위의 농업 대국이며, '25년 1~9월 곡물 평균 수확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3.37t/ha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 생산 증가 추세

- (우크라이나) 러-우 사태 이전 세계 5대 곡물 수출국으로 국내 생산량의 75%가량을 매년 수출했으며, '24년에도 해바라기씨유, 옥수수, 곡물이 각각 수출 상위 1~3위 차지하는 등 농업은 타 산업 대비 빠른 회복세 기록
- (우즈베키스탄) 기존 면화·곡물 중심에서 최근 부가가치가 높은 과채 생산 중심으로 전환 추세이며, 실제로 '25년 상반기 기준 과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0% 급증
- (아제르바이잔) 농산품이 화석연료에 이은 2위 수출 품목으로, 토마토·견과류·가공 농산물을 중심으로 증동, CIS向 수출이 확대되며 현지 농촌 경제 호황세

라. 투자

□ (외국인 투자 동향) 러-우 사태 이후 对CIS 외국인 직접투자가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중심 이동

- (러시아) 서방의 경제 제재 및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 기업 대상 각종 제한 조치로 '22~'24년 투자 역조 현상을 보였으나, '24년 4분기 들어 유입세로 전환
 - 연도별 순 투자 유입 규모는 '22년 △ 398억 달러, '23년 △ 100억 달러, '24년 △ 81억 달러 등 러-우 사태 발발 이후 지속적 마이너스 기록
 - 다만 전년도 투자 급감에 대한 기저 효과, 우호국 투자 확대, 종전 기대감 등 영향으로 '24년 4분기 19억 달러, '25년 1분기 59억 달러 유치
 - (우크라이나) 러-우 사태 직격탄으로 '22년 투자 유입이 주춤했으나 '23년 이후 회복되었으며, 현재 방위산업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세
 - (카자흐스탄) '24년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연간 28.5% 감소한 171.6억 달러
 - △ 타 중앙아시아 국가 대비 큰 경제·인구 규모, △ 풍부한 천연자원, △ 방대한 경작지를 보유한 점 등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
 - △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정책, △ 아시아 경제권과의 교류 확대, △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투자 집중 효과 등으로 카자흐스탄으로의 투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우즈베키스탄)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
 - '24년 투자 유입액은 28.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31.5% 증가했으며, 현지 정부는 '25년 약 43억 달러 투자 유치를 목표
 - 주요 투자국은 러시아, 중국, 튀르키예, 중국, 카자흐스탄 등이며,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 이탈 IT 기업·전문인력 유치로 소프트웨어 분야 활성화 추진
- * (예시) 러시아 iTechArt, EPAM社 → 우즈베키스탄으로 회사 이전

- (기타 CIS) 아제르바이잔, 몽골은 자원 분야 중심으로 투자 유입 확대, 반면 벨라루스는 러-우 사태 여파로 위축
 - (아제르바이잔) '24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연간 5.8% 증가한 70.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주로 튀르키예 및 EU 국가에서 투자
 - (몽골) '24년 41.8억 달러의 투자가 유입되어 전년 대비 18.3%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의 75% 이상이 광업에 집중
 - (벨라루스) '20년 반정부 시위 및 '22년 러-우 사태 이후 꾸준한 하락세

CIS 주요국의 FDI 유치 동향

구분	(단위: 억 달러,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러시아	94.8	404.5	△398.0	△100.5	△81.0
우크라이나	△0.4	73.2	5.3	44.9	33.3
카자흐스탄	171.6	238.1	281.7	239.9	171.6
우즈베키스탄	17.3	22.8	26.6	21.6	28.4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UNCTAD 자료 종합('25년 10월)

□ CIS의 주요 투자 유치 산업

- CIS 주요 산업인 광업, 에너지, 원자재 등을 비롯해, 최근 다양한 분야로 투자 유치 확대 추세
 -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서부 대도시의 경우 유통·상업·연구 등 분야가, 극동지역의 경우 건설, 인프라 등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투자 활발
 - * '24년 중 → 러 투자는 연간 30% 증가, '25년 10월 기준 양국 간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프로젝트 86건 진행 중(러시아 경제개발부)
 - (카자흐스탄) '24년 기준, 광업 및 채굴업(37.8%), 도소매 및 자동차 수리업(31.1%), 제조업(16.5%) 순으로 투자 유치
 - (우즈베키스탄) '24년 기준, 제조업(35.7%), 전기·가스공급(19.5%), 광업(17.1%), 기타(6.9%), 농업(6.1%), 건설(3.7%) 순으로 투자 유치
 - (몽골) 전체 투자 유치의 75% 이상이 광업에 집중되며, 타 분야의 비중은 각각 한 자릿수에 불과

□ 주요 경쟁국의 对CIS 투자 진출 동향

- (중국) 지리적 인접성 및 다수 CIS 국가와 밀접관계 등을 바탕으로 对CIS 주요 투자국으로 등극
 - 일대일로 인프라 건설 및 자원 확보 등을 위해 에너지, 광업, 물류, 건설·토목 등 분야에 적극적 투자
 - 특히, 러시아의 경우 서방 제재 및 당국의 맞대응 조치로 전반적인 투자 유치가 저조한 가운데 중국이 독보적으로 투자 진출 확대 중

※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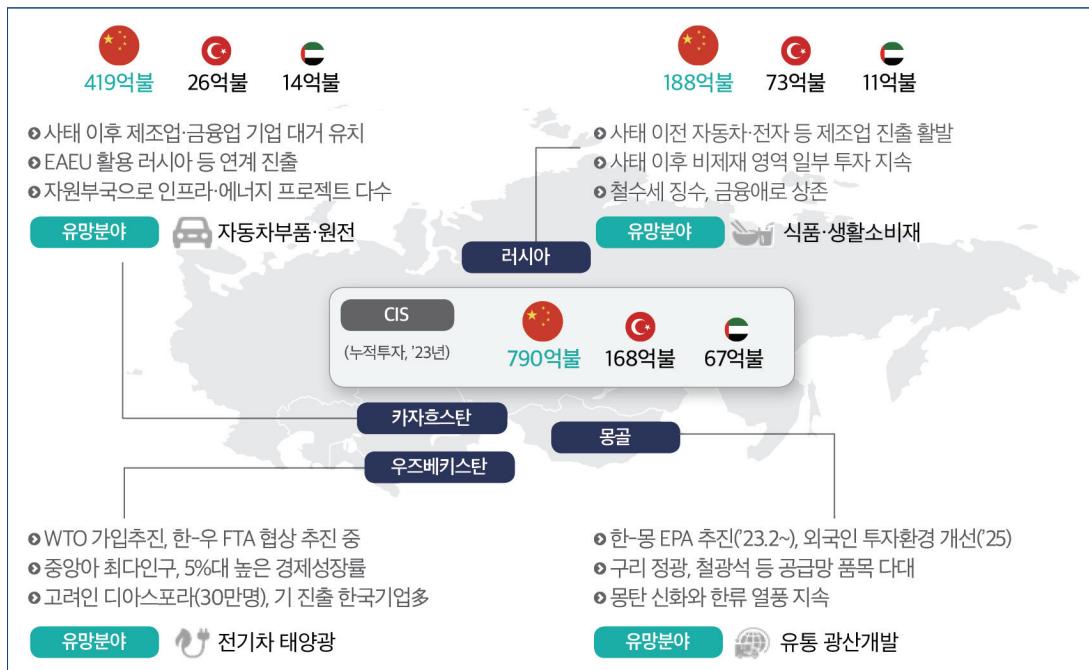
- (개요) '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국가 발전 전략 구상으로 육·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 (주요 내용) 중국 서부와 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유럽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一路)'를 건설



자료: KOTRA 베이징무역관, 국내 언론 등 종합

- (튀르키예·아랍권) 지리적 근접성 및 민족·종교적 동질성 등을 바탕으로 특히 對중앙아시아 투자 확대 추세
- (러시아) EAEU 활용,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타 CIS 국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러시아 기업들도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중앙아시아 진출에 관심
- (서방국) 일부 CIS 국가의 경우 서방 국가 투자 유치도 활발
 - (카자흐스탄) 네덜란드가 2대 투자국으로서 광산업, 제조업, 유통업 투자가 활발하며, 4위 벨기에도 카스피해 횡단 회랑 관련 프로젝트에 등에 큰 관심
 - (아제르바이잔) 영국이 전체 FDI 중 약 24.8%를 차지, 이후 튀르키예(17.3%), 헝가리(14.5%), 키프로스(10.6%), UAE(7.0%) 순으로 집계
 - (몽골) 네덜란드·영국·싱가포르 3개국의 대몽골 FDI가 전체 FDI 중 78% 수준

〈'23년 CIS 주요국별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및 유망분야〉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 한국의 CIS 투자 진출

- (동향) 지난 5개년 한국의 CIS 투자는 총 10.5억 달러로 전체 해외 투자의 0.3%
 - 러·우 사태 이후 对러 직접 투자는 현저히 감소, 차량 부품 생산 등 제조업 및 도소매업 위주의 对중앙아시아* 투자 진출 증가 추세
 - * 카자흐스탄 : BNK(금융), BGF리테일(CU편의점)
 - 우즈베키스탄 : 영산 글로넷, 다산 DMC(이상 자동차 부품)

한국의 CIS 법인 설립 현황(최근 5개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단위: 개)
몽골	17	17	14	27	37	
우즈베키스탄	24	22	16	28	28	
카자흐스탄	6	8	12	16	18	
키르기스스탄	1	4	4	4	8	
러시아	15	23	5	5	3	
우크라이나	5	3	0	1	2	
타지키스탄	1	1	0	3	0	

한국의 CIS 국별 투자액(최근 5개년)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u>카자흐스탄</u>	16	11	3	65	157
<u>몽골</u>	10	6	19	81	29
<u>우즈베키스탄</u>	20	57	23	24	23
<u>러시아</u>	105	130	59	25	3
<u>키르기스스탄</u>	0	2	11	5	11
<u>우크라이나</u>	1	1	0	9	1
<u>타지키스탄</u>	0	0	0	0	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5년 10월)

- (진출업종) 제조업 45%, 금융 및 보험업 11%, 광업 8%, 도소매업 7%, 농·임·어업 5%, 정보통신업 4% 등 순이며, 대 몽골* 광업투자('21년 3백만 달러 → '23년 7천만 달러) 증가
 * 몽골은 구리, 형석, 금 등 희소금속 보유, 정부 차원의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 설립 발표(23년 10월)

한국의 CIS 주요 업종별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업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제조업	34.6	116.2	45.7	91.4	151.5
2	금융 및 보험업	51.5	16.2	8.5	5.3	25.7
3	광업	4.8	1.7	1.3	72.2	0.5
4	도소매업	13.7	17.1	14.1	12.6	9.6
5	농·임·어업	32.8	7.1	4.6	4.4	2.7
6	정보통신업	0.6	25.3	13.1	1.4	2.6
7	보건·서비스업	0.9	1.1	1.1	4.3	31.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5년 10월)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CIS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화장품 제조 A사, 러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국내 화장품 제조사로 스킨케어, 클랜징 제품, 헤어/바디 제품을 고루 취급
- (성공 사례) 국내 A사는 3년 전 러시아 최대 유통망 G사에 입점 성공, 원활한 현지 마케팅을 위해 법인 설립('25년 1월)
 - 모스크바 최대 화장품 전시회(InterCharm) 참가 등 꾸준한 출장과 바이어들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디자인 수정, 패키징 개발 등)으로 바이어 신뢰 및 소비자 인지도 확보
- (시사점) 법인 설립을 추진할 정도로 현지 마케팅에 적극성을 보인 점, 바이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트랜드를 잘 읽어낸 점이 동사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판단됨
 - 단순 스킨케어 제품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인 되어, 경쟁이 심하고 바이어들의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진 바, 신규 진입은 비교적 어려운 상황이며, 빅바이어들은 자사 브랜드(PB제품) 개발·론칭을 중점적으로 진행 중
 - 바이어들은 다양한 품목군(스킨케어 외 헤어/바디 제품 등)을 단번에 공급할 수 있는 거래처를 선호하고 있으며, 결제 조건/공급 조건도 점점 더 바이어에게 유리한 조건을 많이 제시하고 있음



CIS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한식 프랜차이즈 K사, 러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추진

- (기업 정보) 김치찌개 전문 프랜차이즈 K사는 러시아 관광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투자진출 결정
- (성공 사례) 과거 러시아 재래시장을 세련된 실내 시장으로 개선하여 운영 중인 Food center 입점 공략
 - 최근 러시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실내형 재래시장의 Food Center가 복합 문화 중심지로 관심을 받고 있음
 -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형 푸드센터(M센터) 내 한국 음식점이 부재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면담 후 본격 입점 추진
 - 다만 현재 현지 설립 법인으로의 투자금 송금 애로로 인해 법률 자문 등 방안 모색
- (시사점) 글로벌 프랜차이즈 철수로 시장 프랜차이즈 공백 상태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한식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기회로 삼아 선제적으로 진출을 추진하는 건으로 상징성이 큼



CIS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유통기업 B사, 중앙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 (기업 정보) 국내 대표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소매유통 선도기업
- (성공 사례)
 - B사는 '23년 6월 카자흐스탄 최대 아이스크림·식품 제조기업인 Shin-Line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24년 3월 6일 알마티에 CU 카자흐스탄 1호점을 개점
 - 편의점 운영을 위해 양사는 특별합작법인 CUCA(CU Central Asia)를 설립했으며, 현지 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B사는 기술 제휴를 통해 로열티 방식으로 수익을 환수
 - 현재 알마티 시내에서 CU 편의점 다수 매장이 운영 중이며, '25년까지 50개 매장 출점을 목표로 함
- (시사점) 현지 대표 식품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진입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로컬 합작법인 중심의 구조를 통해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 또한 편의점 모델을 현지화함으로써 한국형 소매유통 경험을 전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



CIS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금융 S사, 현지 중고차 기업과 조인트 벤처 설립

- (기업 정보) 현지 금융시장 내 빠른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한국계 소매금융 법인
- (성공 사례)
 - S사는 '14년 11월, 00카드의 첫 해외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알마티, 아스타나, 쉼켄트에서 자동차 금융과 신용대출 등 소매대출 상품을 제공
 - '24년 기준 자산은 약 1,980억 원에 달하며, 연평균 약 70%의 고성장을 기록하여 현지 소매대출 금융사 중 5위 규모로 자리매김
 - '23년 12월에는 현지 대표 자동차 딜러사인 아스터(ASTER)와 합작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 업계 최초로 해외 법인의 외부 투자를 유치
 - 이 합작투자를 기반으로 자기자본 약 620억 원을 확보한 합작 법인(Joint Venture)으로 성장했으며, 향후 5년간 약 310억 원 규모의 추가 자본금을 투입할 계획
- (시사점) 현지 금융사와 차별화된 성장 전략으로 자동차 금융을 기반으로 시장을 선점하였으며, 합작투자를 통한 자본 확충으로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
 - 외부 투자를 최초로 유치한 해외금융 법인 사례로서 한국 금융사의 글로벌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현지 네트워크 확대 및 상품 다각화를 통해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



CIS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통신 K사, 중앙아시아 진출 위해 현지 기업 지분 인수

- (기업 정보) '07년 국내 통신사가 우즈베키스탄 현지 통신사 E사의 지분을 인수해 사업 개시
- (성공 사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4G LTE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출시했으며, 온라인 쇼핑몰도 구축, 최근 타슈켄트 시에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
- (시사점) 초기 시장 선점, 일반 개인 고객보다는 은행, 기업, 공공기관 등을 타겟팅하여 B2B 분야 선도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 장벽

- (제도·행정) 현지 복잡한 행정 관행으로 송금, 외환계좌 개설 등에서 부담 가중
 - 한국이 '22년 이후 러시아의 비우호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세무, 행정 등에서 진출 기업 불이익 사례 다수 발생
 - 러-우 사태 이후 당사국 정부가 통계 등 각종 자료를 미공개하는 사례가 잦아 정확한 현지 정보 획득에 애로
 - CIS 국가 관행상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며, 조세·관세·투자 제도가 자주 변경되어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음
- (경제·금융) 금융 인프라 한계 및 환율 리스크
 - 러-우 사태 여파로 현재 대부분 러시아 주요 은행이 서방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해외 송금 및 대규모 자금 투입·회수 절차 난항
 - 러시아 루블(RUB), 카자흐스탄 텅게(KZT) 등 CIS 현지 통화는 지정학적 정세, 국제 원자재 시세 등의 향방에 따라 최근 높은 환율 변동성을 기록

2. 유망 산업

가. 소비재(화장품·식품)

□ 현지 시장 동향

- (지속 성장) 화장품을 중심으로 對CIS 소비재 수출이 5년간 꾸준히 증가세
 - 한국의 對CIS 수출 3위 품목으로 '25년 9월 누계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한 5억 달러 기록
 - 동 기간 면류(+50.1%), 음료(+4.7%) 등 한국산 주요 식품 수출 역시 우상향 추세

한국산 주요 소비재 품목의 연도별 對CIS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품목(HS code)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누계
화장품(3304)	358	361	532	576	508
면류(1902)	19	23	31	55	54
음료(2202)	27	24	27	33	28
빙과류(2105)	2.9	3.3	4.1	5.0	5.9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10월)

□ 진출 기회 요인

- (한류) 러시아 주요 3대 플랫폼 내 한국 콘텐츠가 다수 증가하고, 몽탄*에 이어 중앙아시아에 CU편의점, BBQ 등이 진출하면서 CIS 전 권역에 한류 열기 돌풍
 - '1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현지 한류 확산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소비자 기반이 형성되며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시장 관심·수요 증가
 - 현지에 라면카페 등 한류 식품 체험형 매장이 등장하며 최근 K-소비재 인지도가 더욱 상승



- (프리미엄) 현지 구매력 상승으로 인한 수요 고급화에 부응
 - 현지 중산층 확대에 따라 소득·소비가 증가하며 다소 높은 가격 불구, 고품질 제품을 기꺼이 구매하는 소비자 증가
 - 기능성·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증가하는 등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현지 생산품은 대체로 이에 부응하지 못해 수입 수요가 높은 편
 - 한국산 제품은 유럽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을 앞세워 CIS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

※ 러시아 뷰티 유통망 G사 인터뷰

- 한국 화장품은 5년 전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며 가격, 품질, 포장, 이미지가 조화된 결과
- '22년 이후 소비자들은 비싸진 유럽산 대신 아시아산 선택, 검증된 한국산은 유럽 대체 가능

나. 자동차·자동차 부품

□ 현지 시장 동향

- (러시아) 글로벌 제조사 철수로 인한 점유율 공백(www.autostat.ru)
 - 중국차 조립 생산 및 러시아의 생산 현지화 정책 불구, '24년 차량 생산량은 80만 대로 제재 이전인 '21년 대비 60% 수준 불과
 - 한편, 중고차 판매량은 '24년 기준 6백만 대로 10년 만에 최대치 기록하였으며, '25년 1~7월 한국의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약 5.3억 달러 기록
- (중앙아시아) CIS 역내 대체 공급 기지로 부상
 - 러시아에서 철수한 글로벌 제조사들이 생산기지 이전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내 자동차 생산은 '21년 32만 대 → '24년 57만 대로 증가(현지 통계청)
 - '25년 1~9월 한국의 對중앙아시아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1.2% 폭발적 증가하는 등 중앙아시아 자체의 자동차 수요도 증가 추세

* 對중앙아시아 자동차(MTI 741) 수출액 : ('24년 9월) 24.5억 달러 → ('25년 9월) 39.5억 달러(한국무역협회)

한국산 승용차, 자동차 부품의 연도별 CIS 주요국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품목(MTI)	국가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누계
승용차 (7411)	러시아	2,549	883	641	586	768
	카자흐스탄	389	1,078	1,128	1,448	1,314
	키르기스스탄	17	224	952	1,416	2,002
	우즈베키스탄	234	458	547	230	89
자동차 부품 (7420)	러시아	1,509	517	358	212	86
	카자흐스탄	21	70	279	161	325
	키르기스스탄	7	18	15	23	20
	우즈베키스탄	882	1,007	872	635	500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10월)

□ 진출 기회 요인

- (러시아) 신차 공급 차질로 중고차·부품 수요 증가
 - 제재로 인한 신차 공급 중단·차질 불구, 뛰어난 품질과 유럽산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자동차의 인기가 지속
 - *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2,000cc 이하의 중고차는 여전히 수출 가능('25년 10월 기준)
 - 차령 노후화에 따라 교체·정비용 자동차 부품 수요도 현지에서 높은 편으로, 제동장치, 서스펜션, 스틀어링 휠 등 비제재 부품 위주로 공략(단, HS Code 8708.99는 수출통제품목)
 - 타이어, 윤활유 등 자동차 소모품 역시 비제재 품목으로 여전히 주요 수출 품목이며, 한국산이 뛰어난 품질로 현지에서 높은 인기
- (중앙아시아) 경제성장과 더불어 현지 자동차 시장 빠르게 성장 중
 - 소득 증대에 따라 등록 차량 꾸준히 증가 추세로, '24년 카자흐스탄 신차판매량 순위에서 현대 1위, 기아 3위를 각각 기록하는 등 현지에서 한국 차가 높은 인기
 - 한편, 현지 등록·운행 차량의 70~80% 가까이가 중고·노후 차량으로, 품질이 보증된 한국산 유지보수 부품에 대한 현지 수요 확대
 - 현지 자동차 조립공장 가동 확대에 따라 설비·부품 기업의 동반 진출 사례도 증가

다. 의료·제약

□ 현지 시장 동향

- (수입 의존) 정부의 국산화 정책에도 불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
 - (러시아) 수입의존도가 의약품 55%, 의료기기 70% 수준으로 의료 현장의 수입 선호가 뚜렷
 - (우즈베키스탄) '24년 의약품 수입 89.5%, 의료기기 수입 61.5% 각각 증가
 - (몽골) '23년 기준 의약품 수입시장은 약 1.5억 달러 규모로, 전체 수요의 80% 이상을 수입

* 자료: 각국 통계청 및 언론보도 종합
- (한국산 선호) 품질,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최근 5년간對CIS 수출 연속 증가
 - △ 한국 제품의 뛰어난 품질, △ 유럽산 대비 가격 경쟁력, △ 对러 제재로 인한 서방 제품 시장 진입 한계 등 요인에 힘입어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기록
 - '25년 1~9월 임플란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
 - '21~'24년 사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도 각각 25% 가까운 증가율 기록

한국산 의약품·의료기기 연도별 对CIS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품목(HS code)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누계
의약품(3004)	19	17	25	24	18
의료기기(9018)	150	166	180	188	114
임플란트(9021.29)	103	124	153	176	127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10월)

□ 진출 기회 요인

- (절차 완화) 상황허가 면제 및 Fast Track 도입
 - (러시아) '25년 2월부로 의약품, 의료기기 수출 시 상황허가 면제 적용
 - (우즈베키스탄) '25년 10월부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약품에 대해 현지 재심사 없이 간소화 등록하는 Fast Track 시행
- (수요 확대) 현지 의료산업 발전 전략에 따라 수입 수요 계속 확대
 - (러시아) '2030 제약 산업 발전 전략'에 따라 생산 역량 향상을 위해 해외 선진 기술 도입을 모색 중으로, 제네릭 의약품 제조 기술 및 바이오시밀러 개발 관련 기술 협력 모색
 - (아제르바이잔) 국립병원·진단센터의 신설 및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 중으로, 첨단 진단 장비·전자 수술기기·분석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 유망

라. AI

□ 현지 시장 동향

- (러시아) 러시아 제재로 핵심 하드웨어 및 인력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기술혁신 지속, 2030 국가 AI 발전 전략 이행 및 산업별 AI 적용 확산 노력
 - 투자 유치, 표준 개발, 인재 양성 등을 목적으로 90여 개 러시아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AI Alliance 구성하여 12개 분야 191개 과제 이행 중, 최근 AI 정책 이행 컨트롤타워 'AI 개발센터' 설립 계획 발표('25년 5월)
 - BRICS·인도네시아·세르비아와 AI 기술 개발 연합체 구성('24년 12월), 중국·인도 등 우호국과의 양자협력 시 AI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는 등 대외협력 활발

러시아 AI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주요 동향
Yande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최대 IT 기업 • 그룹 서비스의 핵심으로 키우기 위해 'Yandex GPT' 개발, 해당 시스템이 장착된 AI 비서 Alice는 러시아 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 최근 공개된 'YandexGPT5'는 'GPT-4oMini' 준하거나 앞선다고 평가
S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최대 금융그룹 • 해당 기업은 은행업무를 넘어 AI를 활용 테크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 중 • 슈퍼컴퓨터 'Christofai NEO'를 운영하는 AI 모델 학습 진행 중 • SberCloud, SberMedi, SberDevices 등 자회사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또한, 매년 러시아 최대 AI 포럼인 'AI Journey'를 개최하여 교류의 장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er 챗봇 'Gigachat', 이미지 생성 모델 'Kandinsky'는 약 1,800만 명의 사용자 수 기록
M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최대 이동통신사 • 최근 90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는 개발자용 AI 비서 'Kodify 2' 출시 • '21년 안면인식 솔루션기업 'Vision Lab' 인수를 통해 자사 3,500개 매장에 안면인식 서비스 운영 • 그 외 화상회의 솔루션, 핀테크, 영상 스트리밍, 광고 플랫폼 등 제공 서비스에 AI 적용 • MTS 산하 MWS AI, 자체 LLM 개발에 약 1,200만 달러 투자

자료: 기업 홈페이지 및 KOTRA 노보시비르스크 자료 종합

- (카자흐스탄) 국정과제로 AI 육성을 추진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25년 9월 국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 아젠다로 3년 내 완전한 디지털 국가 전환, AI 전면 도입과 경제 사회 전 분야 디지털화 추진”을 지시
 - 제조업, 물류, 디지털 도시(Alatau City), 농업·토지·물 관리, 조세 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AI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예정
 - 공공·민간 전반에서 디지털화·자동화·스마트화가 공통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며, ICT·AI, GovTech, 교육, 금융, 교통·물류·스마트시티 등 주요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수요 발생 전망

□ 전망 및 기회 요인

- CIS 국가들의 AI 산업은 정부 주도로 민관이 긴밀히 협업하는 체계로 발전
 - 정부가 관련 정책 추진을 일원화하고 국가 차원의 소버린 범용 AI 서비스와 대형 테크기업의 분야별 수직형 AI가 결합하여 확산하는 추세
- 글로벌 AI 시장 재편 과정을 분석해 러시아 등 유망국가와의 협력 기회 모색, ‘born global AI’ 개발 전략 수립 필요

3. 협력 기회

가. 통상·G2G

□ (통상)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IPF(Trade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등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교역 확대 추진

- (조지아) CIS 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무역협정 체결('24년 11월)
 -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승용차 및 소비재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으며, 향후 10년 내 전체 품목 중 91.6%에 적용되는 관세 역시 철폐 예정
 - 또한 운송·물류업, 콘텐츠, 교육 등 서비스 시장도 폭넓게 개방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 원활화 및 현지 한류 접근성 향상 등이 기대

※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주요 타결 내용

- (상품)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 93.3%, 조지아는 91.6%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
 - 승용차(중고 승용차 포함), K-푸드, K-뷰티 제품 관세 즉시 철폐
- (서비스) 조지아의 해운, 도로화물운송, 창고업 등 폭넓게 개방
- (조달시장) 조지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4,800여 개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 조달 시장 개방
- (디지털무역)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금지영구화(K-콘텐츠 경쟁력 확보)

- (몽골) 한-몽 EPA 체결 추진
 - 양국 정부는 '23년 9월 공식 협상 개시 이후 '24년 11월까지 4차례 협상을 실시했으며, 상품 관세장벽 철폐 및 투자·금융, 서비스 분야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
 - 최종 체결 시 △ 한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 개선, △ 현지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등 긍정적 결과 예상
- (우즈베키스탄) '지속가능한 무역 및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 지속 추진
 - '21년 1월 협상 개시 이후 양국의 지속적 노력으로 '23년 9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
 - 이를 통해 한국은 향후 몰리브덴, 텅스텐 등 희소금속의 원활한 공급을 기대

□ (G2G) 지역 균형 발전, 산업 다각화 등 주재국 주요 정책 분야에서 협력 추진

- (러시아) 러-우 사태 종료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 기대
 - (극동개발) 러시아는 서쪽 수도권에 편중된 경제·인구 구조를 개선하고자 신동방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방 거점도시에 산업생산·자원개발시설, 의료시설 구축 등을 위해 대규모 투자 진행(지리적 이점을 살려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에 용이)

- (기술 협력) 전통적으로 수학, 물리학, 화학, 우주항공 등 기초 과학기술이 발달해 한국의 응용 기술과 접목 시 Win-Win하는 상호 보완적 구조
- (AI 협력) 러시아 정부 2030 AI 발전 전략* 추진, 중국·인도·브라질 등 13개국 ICT 기관 참여 민관협의체 AI Alliance 구성, 투자·해외 협력 등 지원*
 - * '30년까지 AI 국내총생산 1조 4천억 달러 목표, 슈퍼컴퓨터 구축 등 15억 달러 투입
- (몽골) 산업기술 발전, 인프라 개발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희망
 - (산업 다각화) 몽골은 광업 의존적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광물 및 축산물을 가공하는 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바, 몽골 정부는 한국 기술 전수를 희망
 - (인프라 개발) 기본 시설 건설, 전력 에너지 확충, 교통 인프라(도로, 철도, 지하철) 확대 등 경제 개발을 위한 전략적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계획

나. 프로젝트

□ (에너지) 설비 현대화 및 수입의존도 개선 위한 프로젝트 수요 多

- (러시아) 정유 설비(펌프, 압축기, 공기냉각시스템, 원심 펌프)의 수입의존도 평균 65%, 천연가스 액화 설비 수입의존도 80%로 추산되며, 러시아 정부는 '30년까지 관련 설비들의 현지 생산을 추진 중으로 관련 프로젝트 다수 전망
- (카자흐스탄) 대부분 구소련 시절 건설된 노후 발전소의 현대화를 추진 중으로, △ 발전소 EPC 설계, △ 청정 석탄 기술, △ 탄소 포집(CCUS) 기술, △ 발전소 자동화, △ 스마트 제어 시스템 등 분야에서 협력 유망

□ (조선) 물류 다변화를 위한 북극항로 개발 참여

- (러시아) '30년까지 조선 건자재의 70%를 현지 생산화 추진 중으로,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 참여 및 기술 협력(기술 이전, 합작투자)이 유망
 - '2035 북극항로 개발 계획'에 따라 약 1,800억 달러 투자 계획이며, 쇄빙선 및 항만 인프라, 북극지역 개발 관련 협력 수요도 증가 전망
- (경쟁국 동향) 중국은 러시아와 공동으로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 북극 LNG 투자 프로젝트 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제재 우려 등으로 타 국가 참여는 저조

□ (건설·토목) CIS 각국 정부의 지역 개발 및 인프라 확충 추진

- (러시아) 지방 인프라 개발 및 스마트시티 건설 활발 등 수요 지속, 중국 및 자국 기업의 비중이 높아 기자재 납품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감리 분야 등으로 공략 필요

- (카자흐스탄) 광대한 영토와 내륙국 특성으로 인해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이 국가 주요 과제로, △ 고속도로 건설·확장, △ 대형 교량 및 고가도로 건설, △ 철도 현대화, △ 시공감리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 스마트 교통 인프라 등 분야 협력 유망
- (아제르바이잔) 카라바흐 전쟁 이후 수복지역 주민 정주를 위해 주거시설, 사회서비스, 스마트농업,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개발 모델 추진

□ (의료) 현지 의료 인프라 현대화 수요에 부응

- (러시아) 자국산 수입대체가 미진한 △ 고정밀 장비 및 K-뷰티 연계 미용기기 공급, △ 프리미엄 병원 진출, △ 의료시스템 이전·컨설팅 등 서비스도 공략 가능
- (카자흐스탄) 국가 차원에서 △ 진단 기술 향상, △ 병원 시설 확충, △ 전문 의료기관 설립, △ 의료 인력 교육 등 보건 인프라 현대화 추진

다. 공급망(자원개발)

□ (러시아)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장

- 석유 매장량 세계 6위, 생산량 세계 3위이며 석탄 보유 세계 2위, 광물·합금 등 세계 에너지 및 광물 원자재 시장에서 최대 공급국 중 하나
-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협력은 불가피, 선제 준비 필요

러시아의 주요 광물 생산 및 유통 동향

주요 자원	내 용
석탄 (매장량 세계 2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산 석탄은 △지리적 이점과 △소규모 단위 수입 가능 등 장점, 최근 최대 수요처인 중국·인도의 수입 감소로 가격 경쟁력 또한 제고 중
희토류 (매장량 세계 4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내 희토류 매장량은 약 2,850만 톤으로 세계 2위이나 생산 비중은 1% 미만, 저렴한 중국산에 밀려 상당 부분이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추후 대체 공급처로서 부상할 가능성 존재(러 정부 '30년까지 희토류 등 희귀금속 자급률 제고 추진)
요소수 (생산 기준 세계 3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소의 원료 중 하나인 천연가스가 풍부하고 '21년 요소수 대란 시 대체 공급국으로 떠올랐던 러시아의 요소수 생산은 세계 4위 수준(5.5%)이며, 산업용·비산업용 요소수 생산이 여전히 활발한 만큼 베트남·인도네시아를 잇는 잠재적 대체 공급국
니켈 (생산 기준 세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테인리스강 합금,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등의 핵심소재로, 러시아는 세계 생산량 10%를 차지, 최근 對우호국 니켈 수출을 늘리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Norilsk사 등이 활발하게 활동 중으로 협력 가능성 존재
마그네슘 (생산 기준 세계 4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마그네슘 세계 4위 생산국으로 전체 수입량의 85%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잠재적 대체 공급처

자료: 러시아 천연자원부 자료 바탕으로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

□ (우크라이나) 22종 핵심 광물의 산지

- 희토류, 리튬, 우라늄, 티타늄, 망간, 흑연, 니켈 등 다수 핵심 광물의 유럽 최대 매장국으로 추정되며, 한국은 '24년 우크라이나산 티타늄의 최대 수입국
- 현재 러-우 사태 이전 대비 생산량이 55.5% 급감하였으나, 사태 종결 시 향후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안정적 전략자원 공급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 '25년 5월 美-우크라 광물 협정은 우크라이나 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주요 예시

□ (카자흐스탄) 풍부한 자원과 제도적 지원이 결합된 전략적 협력 기회처

- 세계 최대 규모의 우라늄 생산국(세계 점유율 약 40%)일 뿐만 아니라, 리튬·희토류·티타늄·망간·크롬·니켈·코발트 등 풍부한 전략자원 보유국
- 미개발 지역이 다수, 자국 내 정련·가공 기술 및 광산 인프라(용수·전력·환경관리)와 자본 부족으로 국제 파트너와의 기술·재정 협력이 필수적
- 카자흐스탄 정부는 핵심광물 개발을 국가전략으로 지정, 해외 파트너에게 우선권 부여 형태의 MOU를 체결하여 자원 생산 현지화 및 부가가치 사슬(정련·소재 가공) 확대를 목표로 외국 기업과의 협작을 적극 유치 중

카자흐스탄 주요 자원별 확인 매장량 및 순위

자원	확인 매장량	세계 순위	자원	확인 매장량	세계 순위
가스(조 ㎥)	2.3	25위	크롬(천 톤)	230	1위
석탄(억 톤)	256	10위	철광석(백만 톤)	340	11위
우라늄(천 톤)	842	2위	아연(백만 톤)	13	6위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아제르바이잔) 알루미늄 개발 협력을 위한 대외 협력 희망

- 양질의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합금 기술이 부족해 저렴한 원료 잉곳 상태로 판매 중, 현지 정부는 산업다각화 차원에서 기술 협력을 통한 산업 육성 추진
 - * 알루미늄은 아제르바이잔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23년 기준 4위, 아제르바이잔 통계청)

□ (몽골) 세계 10대 천연자원 부국

- 희토류(3,100만 톤, 전 세계 매장량 16.8%), 몰리브덴(매장량 7위, 생산량 9위), 텅스텐(세계 5위 부존국, 세계 3위 생산량), 주석, 리튬, 바나듐 등의 희소금속 다수 매장
- 한-몽골 양국이 공동으로 '희속금속 협력 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희토류 포함 광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발굴·추진을 통해 특정 국가에 편중된 자원 공급망 관리

III. 진출전략

- | | |
|-----------------|----|
| 1. PEST/SWOT 분석 | 70 |
| 2. 진출전략 | 72 |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국내 정치) CIS 주요국 대부분 안정적 정치 상황 유지
 - (러시아) 러-우 사태 불구, 푸틴 대통령 지지율 77~80%대 유지
 - (중앙아시아·기타 CIS) 강력한 대통령제 기반 정치적 안정
- (대외통상) 각국 통상협정 확대로 경제 활력 모색
 - (러시아) BRICS 확장, 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 우호국과 협력 모색
 -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 추진, 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 對EU 에너지 공급 확대
- (주요 정책) 제조업 육성, 지방 인프라 개발, 물류 다변화 등
 - (제조업 육성) 러시아 수입대체화, 중앙아시아 산업 다변화 정책
 - (인프라 개발) 러시아 지역 균형 발전 추진, 카자흐스탄 '2029 국가개발계획' 등
 - (물류 다변화) 북극항로, 국제남북운송회랑, 중간회랑 등 개발 가속화



경제(Economic)

- (경제성장률) 권역 전반적 고성장 추세이나, 주요국 성장률은 위축
 - (러시아·카자흐스탄) '26년 러시아 1~2%대, 카자흐스탄 5.4% → 4.3% 위축 전망
 - (기타 CIS) 우즈베키스탄 7.2% 고성장, 몽골 연평균 5~6%대 기록
- (산업생산) 러시아는 다소 둔화, 중앙아시아는 고성장세 지속
 - (러시아) '25년 전체 산업생산 1.4% 증가, 제조업 8.5% → 3% 등 둔화세
 - (중앙아시아) '25년 상반기 카자흐스탄 6.9%, 우즈베키스탄 6.6% 등 고성장세
- (투자 유치) CIS 투자 중심은 러시아 → 중앙아시아·기타 CIS로 이동
 - (러시아) 러-우 사태 여파로 '22~'24년 투자 역조 현상 기록
 - (기타 CIS) '24년 FDI 우즈베키스탄 31.5%, 몽골 18.3%, 아제르바이잔 5.8% 등 증가세



사회문화(Social)

- (인구 추세) 많은 인구와 젊은 평균연령을 바탕으로 높은 소비잠재력 보유
 - (러시아) 인구 1.4억 명, 세계 9위의 거대시장
 - (중앙아시아) 평균연령 카자흐스탄 32세, 우즈베키스탄 29세의 젊은 시장
- (소비 성향) 생필품·가성비 제품 중심이나, 최근 고품질 제품 수요 확대
 - (러시아) 제재·수입대체 불구 프리미엄 수입품에 대한 높은 수요 유지
 - (중앙아시아) 대도시 중심으로 고품질·프리미엄 제품 수요 확대
- (전자상거래) '24년 시장 규모는 약 1,294억 달러로 '21년 대비 3배 성장
 - (러시아) '23년 45%, '24년 36% 성장률, 러시아 플랫폼의 주변국 진출 확대
 - (중앙아시아) 현지 토종 플랫폼 등장, 현지 정부 육성책에 힘입어 고속 성장



기술(Technological)

- (산업육성) 자원 의존형 경제구조 극복을 위한 CIS 각국의 제조업 육성 및 인프라 개발 정책 추진
- (자동차산업) 글로벌 완성차기업의 생산기지 중앙아시아 이전 및 각국의 조립 생산 증가로 자동차 생산 확대
- (AI·디지털) CIS 각국 정부의 국가 디지털화 추진, AI 산업 활성화
- (금융) 對러 제재에 따른 러시아의 자체 결제망 구축 노력, 러시아 비트코인 무역대금 결제 합법화('25년 10월)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자동차, 의료, 기계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한국산 경쟁력 보유
- 젊은 인구층과 다수의 프랜차이즈, 편의점 진출로 최고 수준의 한류열풍 지속
- 러-우 사태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진출 한국 기업 잔류 및 사업 지속으로 신뢰 구축

약점(Weakness)



- 러시아 정부의 한국 비우호국 조치로 우호국 대비 관세 부담 등 가격 경쟁력 악화
- 언어(러시아어 통용), 문화, 종교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및 마케팅 제약
- 러-우 제재와 러시아의 잦은 무역통상정책 변경에 따른 수출 및 정보 수집 애로 발생

기회(Opportunity)



- 서방 기업 철수에 따른 전통적 경쟁자 부재, 공급망 재편 전환기 속 대체시장 수요 확대
- E-commerce 활성화 및 수입시장 확대
-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역내 무관세, 단일 인증 통용 등 높은 시장 탄력성

위협(Threat)



- 공급망 재편 기회를 활용한 러-우호국(중국, 튀르키예)의 약진
- 러시아의 폐차세 인상, 라벨링 확대 시행 등 자국산업 보호 등을 위한 무역장벽 확대
- 서방의 러-우 제재 및 러시아의 비우호국 규제 강화, 기업들의 Reputational Risk 우려 심화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KOREA Premium으로 수입대체시장 공략
- 한류 및 EAEU 역내 무관세 제도 적극 활용
- 북극항로 개발 참여를 통한 물류 다변화

»
공급망 재편
전환 기회 활용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중국, 튀르키예 진출 등 신경쟁구도 대응, 중저가 제품과의 차별화 품목 발굴
- 기존 한국 인지도 및 잔류 러 진출 기업 인프라 활용

»
고급 브랜드
이미지 구축
전략적 차별화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비제재 품목·신규 수출 강세 품목 수출 확대
- CIS 국가의 제조업 육성에 부응, 기술 협력 추진
- 중소형 플랜트 수주 확대(건설, 디지털 등)

»
협력 패러다임을
활용한 시장 접근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제재 강화 대응, 대체 송금·물류 루트 확보
- 현지 정세, 정책, 규제 등 변화 사항 모니터링
- 포스트 러-우 사태를 대비하는 리셋 비즈니스 준비

»
위기 단계별 대응 강화,
비즈니스 다각화

2. 진출전략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CIS 역내 공급망
재편을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

제조업 육성 정책을
활용한 원자재,
기계·장비 수출

한류 열풍 확산,
K-소비재, 콘텐츠
동반 진출

CIS 미래 유망분야
경제협력 확대

미개척 시장,
전후복구사업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 KOREA Premium 제품으로 글로벌 기업 철수에 따른 시장 공백 공략
- CIS 내 新허브로 부상하는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수출·투자 기회 모색
- EAEU 역내 통합 관세·인증 제도를 활용한 러시아·중앙아시아 등 對 CIS 시장 동시 진출

- CIS 각국의 자국산업 육성 정책에 유효한 기계, 설비 등의 품목 타깃, 일시적 관세 감면 조치 등을 활용
- 러시아 기업의 중앙아시아 생산 이전 또는 자국 OEM 수요 확대에 대응한 기계 수출 및 유류 기술·장비 이전 사업 진행

- KOTRA 등 현지 진출 기관에서 주관하는 문화 접목 마케팅 행사 참여
- 고속 성장 중인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공격적인 디지털 마케팅 실시
- 안심표시 라벨링 사전 준비, 현지 유통사와의 협업 확대, 제품 다양화 등

- 농업 생산성 확대를 위한 현지 보조금 정책 활용, 스마트팜 분야 공략
-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신규 원전 프로젝트 관련 기자재 납품
- 북극항로, AI 등 현지 중점 산업 관련 기술 협력 강화

- 조지아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활용한 코카서스 3국 미개척 시장 진출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유·무상 원조 two-track 활용
- 현지 대기업 기 수주 프로젝트 내 중요 기자재 재하청 등 레퍼런스 확보 통한 카라바흐 재건 프로젝트 진출

전략 ①

CIS 역내 공급망 재편을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



전략 수립 배경

- 러-우 사태 이후 우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 중인 러시아 내부에서 지나치게 높은 중국 의존도 완화와 상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 대두
- 중앙아시아가 对러 제재 풍선효과로 CIS 역내 자동차 생산·수출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현지 신규 공장 건설에 따른 협력 수요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니즈 확대
- 한국 제품은 서방 못지않은 품질과 브랜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어, 프리미엄 대안으로 부상할 잠재력 보유, '가성비를 갖춘 프리미엄 제품'으로 전략적 포지셔닝 필요

〈러시아〉

□ 현지 동향

- 글로벌 기업이 철수한 자리를 중국 중심의 우호국 파트너가 차지하며 최근 현지에서 과도한 对중국 의존도 경계하며 대체 공급선 확대 필요성 제기
 - 한국 프리미엄 제품을 활용, 희소성과 품질 측면에서 가치 재조명 가능
- '24년 러시아의 对중 수입은 2,451억 달러로 러-우 사태 이전 '21년 대비 67% 증가
 - '25년은 7월 누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하였는데, 이는 시장 포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폐차세 인상('24년 10월) 등 수입장벽 강화 이전의 대규모 선구매에 따른 기저 효과에 기인

러시아의 주요국 대외교역액

(단위: 억 달러)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7월 (증감률, %)
비우호국	미국	360	161	52	35
	EU	2,779	2,538	892	705
	일본	218	199	103	79
우호국	중국	1,467	1,885	2,402	2,451
	인도	115	369	647	709
	튀르키예	347	680	565	525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25년 11월)

□ 유망 품목

- (고급 생활용품) 서방 제품 존재하나 장기적으로 유럽산을 대체할 중·고급 제품 수요 존재, 기술력과 브랜드 갖춘 한국산 유망
- (자동차용품) 윤활유·타이어 등은 한국의對려 주요 수출 품목으로 부상, 한국산 인지도는 높으나 프리미엄 제품은 아직 유럽산의 점유율이 높은 편
- (의료기기) 서방 장비 공백 속 중국 등 러 우호국 대비 한국 기술력 우수, '25년對려 의료기기 수출 시 상황 허가 면제*로 서방 주요국보다 선제 진입 가능

* 제36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로 의료기기의對려시아·벨라루스 수출 시 상황허가 면제('25년 2월 28일)

□ 진출전략

- (포지셔닝) 한국산은 '가성비를 갖춘 프리미엄 제품'으로 마케팅 필요, 가격 경쟁력 확보와 함께 고급 소재·기술, 디자인 강조, 고급 유통망 내 판촉 등 활용
- (브랜드 신뢰 확보) 서방 브랜드의 러-우 사태 이후 갑작스런 이탈에 대한 불신, 기타 우호국 제품 내구성에 대한 인식 등 고려하여 장기간 제품 보증, 현지 AS 센터 제휴 확대 등 품질 보증과 A/S에 집중해 신뢰도 제고

〈중앙아시아〉

□ 현지 동향

- 对려 제재로 러시아의 자동차 생산이 급감하면서 중앙아시아가 역내 새로운 생산·수출 거점으로 부상
 - 러시아와 같은 EAEU 회원국인 카자흐스탄은 역내 무관세 제도 등을 활용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23년 역대 최대 규모의 수입을 기록하는 한편, 러시아의 폐차세 인상 및 통관 강화로 최근에는 감소 추세

카자흐스탄 차량(HS Code 8701-8704) 수출입 규모

(단위: USD 백만,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입	4,490.4	69.6	3,325.6	-25.9	2,343.9	7.8
수출	426.1	2.1	219.4	-48.5	68.6	-49.1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25년 11월)

- 우즈베키스탄은 정부의 제조업 국산화율 정책에 따라 자동차 부품 현지 조달률이 약 50% 수준이며, 중국 BYD, Chery 자동차 현지 공장들이 운영이 본격화됨

외국 자동차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주요 진출 사례

산업분야	합작회사명	합작 주체	국가	설립연도	형태	비고
자동차·운송기계	ADM Jizzakh LLC	UzAuto Motors, KIA, GM	한국, 미국	2021	합작	KIA 및 Chevrolet 차량 연 25,000대 조립 생산
	Chery Uzbekistan Factory	Roodell, Chery Auto	중국	2022	합작	연 50,000대 조립 생산, '25년부터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 본격화
	BYD Uzbekistan Factory	Uzavtosanoat JSC, BYD Auto	중국	2023	합작	전기차 조립공장, 연 50,000대 조립 생산

자료: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종합

- 자동차 교역량 증가에 따라 중고차 거래가 활성화되고 관련 부품 및 수리 수요 증가
 - '24년 기준 카자흐스탄의 전체 차량등록은 184만 대로 이 중 81%인 149만 대가 중고차로 집계되는 등 대규모 중고차, 부품 시장 형성
 - 정부 정책 영향으로 자국 내 생산 자동차 확대를 위한 주요 조립 생산기업들의 라인 증설 및 생산 브랜드·모델 확대 중
- 카자흐스탄 정부는 '27년까지 현지 생산 비율을 50% 수준을 확대하고자 해외기업의 투자 진출을 우대하며 투자 계약에 따라 세제 및 관세 혜택을 제공 중

〈기아자동차 카자흐스탄 조립공장 준공('25년 10월)〉



자료: 국내 언론, 기아자동차

□ 유망 품목

- (자동차 부품) 국제 제재에도 對 카자흐스탄 중고차 수출 지속*에 따라 제동장치, 자동차 휠 등의 부품류 수요 확대
 - * 한국의 對 카자흐스탄 중고차 수출: ('23년) 3.4억 달러 → ('24년) 3.8억 달러 → ('25년 9월) 5.7억 달러
- (자동차 제조설비) 카자흐스탄 현대·기아차 공장 인근에 부품 생산단지가 구축될 계획으로 금형, 사출기 등 관련 생산설비 및 MRO 수요 발생 예정

□ 진출전략

- (사후 관리 강화)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는 우호적인 편이나, 저가 중국산 부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두드러지므로, 품질 보증 및 애프터서비스 제공을 통한 차별화 추진
- (프리미엄 활용) 고급차 및 신차 보유층 대상 전자장치, 인포테인먼트, 고급 내장재, 액세서리 등 프리미엄 부품 시장 적극 공략
- (현지 파트너링) CKD/SKD 조립 라인에 공급 가능한 범퍼, 시트, 배선, 플라스틱 사출품 등에 대해 단계적 현지화를 전제로 부품 현지 생산 및 조달 협력 추진

러-우 사태 전후, CIS 자동차 공급망 비교

	Before	After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 및 글로벌 브랜드 완성차 조립·생산 '21년 기준 연간 150만 대 • 자국 내 제조차량은 내수 및 CIS 각국으로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철수 또는 영업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 브랜드(Lada) 및 서방 기업 철수 공장 인수 중국 기업 등 활용 조립 • '23년 이후 신차로 정식 통관 가능한 차량 브랜드는 중국산분임
카자흐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글로벌 브랜드 완성차 조립·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은 일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등으로부터 수급 • 자국 생산 외 수요는 러시아산 제조 신차 또는 중고차 수입으로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조립생산 확대를 통한 CIS 내 신차 생산 부족량 대체 추진 • 그럼에도 신차 공급 부족 상태로 중고차 수요 동시 증가
우즈베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소유 자동차기업(UZ Auto) 통한 완성차 조립·생산 • 자국 생산 외 수요는 러시아산 제조 신차 또는 중고차 수입으로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조립생산 확대 추진 • 중국 BYD와 전기차 합작법인 설립 및 전기차 생산 확대
키르기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산 제조 신차 또는 중고차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승용차 수입액은 63억 달러로 러-우 사태 이전인 '21년 0.7억 달러에서 폭발적으로 증가 EAEU 역내 무관세를 활용한 러시아 역수출) • '25년 3분기 기준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 5위로 급부상 (10.6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84.5% 증가)
아제르바이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산 제조 신차 또는 중고차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1~7월 승용차 수입은 2만 6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20% 증가, 일부 러시아로 역수출 • 자국 경유 물류 루트 개발 등 물류 산업 확대 추진
조지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산 제조 신차 또는 중고차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차 수입 확대 및 러시아로 역수출 • 자국 경유 물류 루트 개발 등 물류 산업 확대 추진
벨라루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Geely와 합작 제조법인 'BelGee' 설립 및 제조(생산차량 50%는 러시아 수출) • 자국 생산 외 수요는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수입 제한으로 내수시장 75%는 BelGee 생산 차량이 차지
우크라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자동차 조립·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기반 파괴 등 수입 시장으로 변모

자료: 해외 언론,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

전략 ②

제조업 육성 정책을 활용한 원자재, 기계·장비 수출



전략 수립 배경

- 공급망 재편 전환기를 겪으면서 CIS 각 국가별로 수입대체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생산 자동화 움직임도 활발히 추진
- 중국, 러시아 등 우호국 중심의 경쟁국들이 선제적으로 현지 합작·조립생산 기반을 확대하면서, 단순 수출형 모델의 경쟁력이 약화됨
- 한국은 고기술 제조역량을 갖춘 파트너로 산업·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회 모색 가능

□ 현지 동향

- (러시아) 자원 의존형 경제 탈피 및 對러 경제 제재로 인한 자국 경제 고립 탈피를 위해 '제조업 발전전략 2035'를 통해 제조업 육성을 추진
 -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투자 활성화 및 생산 자동화를 통해 '35년까지 GDP에서 제조업 비중을 15.5%, 혁신기술 도입 기업 비중을 45%까지 확대하는 목표 설정'

러시아 주요 사업별 육성 동향

구분	주요 동향	성과 및 한계
자동차	CKD 전환, 국산 부품 60%	중국차 수입 의존 확대
화학	고분자·복합소재 중심 생산량 2배	핵심 공정 습득에 애로
제약	의약품 국산화율 90%	비제제품으로 수입 지속
전자	반도체 부품 육성, 수출 150억 달러	핵심 부품·SW 미비
식품	스마트팩토리 확충, 수출 다변화	생산자동화율 50% 달성
농업	IoT 확산, 핵심기계 국산화율 80%	농업 수출국으로 부상

자료: 현지 언론보도 자료 종합

-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대응을 위해 정부 주도의 생산 자동화 추진, 러시아 스마트 제조 시장을 AI 발전전략과 함께 '30년까지 두 배로 성장 목표'

- (카자흐스탄) '50년까지 30대 선진국으로 목표로 하는 '카자흐스탄 2050 전략' 추진 중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발전 목표
 - (자동차 산업) 현지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25년까지 부품 현지화율 50% 달성, '27년까지 완전 조립(CKD) 방식으로 전환해 자국 자동차산업 육성
 - (화학산업) 약 9,250만 달러를 투자해 14개 화학공장 건설
- (우즈베키스탄) '30년까지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건설을 위한 '2030 발전 전략'을 추진 중으로 자동차, 금속, 농업 분야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 육성
 - 식품 가공, 섬유, 화학, 제약, 건축자재 등 5개 분야를 주요 외국인 투자 유치 대상으로 발표, 자국 생산 관련 원재료·기술·설비 조달 시 관세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벨라루스) '22년 기준, 자국 기계 설비 노후화율은 78%로 산업 현대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설비 교체 추진 계획
 - '23년 벨라루스 GDP 내 제조업 비중은 27.5%로 석유화학 및 농·광산 기계 제조 분야 내 강점 보유
- (아제르바이잔) 30% 가까이 종사하고 있는 농업과 관련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매우 시급한 문제로 농업부 산하 국영기업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 진행 중
 - * 농업은 항상 석유산업 다음의 중요 산업이었고 '92년 아제르바이잔이 독립 이후 항상 30% 이상의 국민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
 - 코로나19 이후 보건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한 의약품, 의료 기기에 대한 수입 수요 확대

〈CIS 국가별 제조업 육성 동향〉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 유망 품목

- (생산자동화 설비) 공정 로봇화·디지털화 수요 증가, 러시아 시장 규모가 '24년 약 10억 달러에서 '30년 약 26억 달러로 연평균 16.5% 성장 전망
 - * 현재 △ 발전소, △ 야금업계, △ 화학업계 등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 98% 가량이 독일 Siemens사 제품 등 수입에 의존하는 추세로 현지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 러시아산 장비의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성에 의문
- (식품가공기계) 식품산업은 수입대체율이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로 식품 생산 현장에 로봇·드론·자동화 라인·AI 도입 중이며, 특히 러시아는 지난 5년간 유제품 산업 중심으로 자동화율을 38%에서 50%로 상승하는 등 대규모 설비투자 진행
 - * '25년 1~9월 한국의對러시아 △ 식품가공기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1% 증가한 2,595만 달러
- (기계 부품) 러시아 국내 생산 확대 움직임에 따라 향후 전반적인 기계·부품 수요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25년 1~9월 한국의對러 수출액 대폭 증가
 - * 기타 기계류 +418%, 기계류 부품 +773%

□ 진출전략

- (현지 파트너링) 향후 관세 및 비관세 수입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위탁생산 또는 일부 반조립 등으로 진출
- (전주기 지원) 단순 제품 판매가 아닌 CIS의 낮은 기술력을 감안, 인재 양성, 품질관리, 디자인 등 전 분야에 걸친 기술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포트폴리오 다양화) 지역·도시별 산업 특성 파악,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거점도시 및 EAEU 내 타국도 공략하며 상품 라인업 다양화 및 리스크 분산

전략 ③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정착한 한류, 소비재·콘텐츠 동반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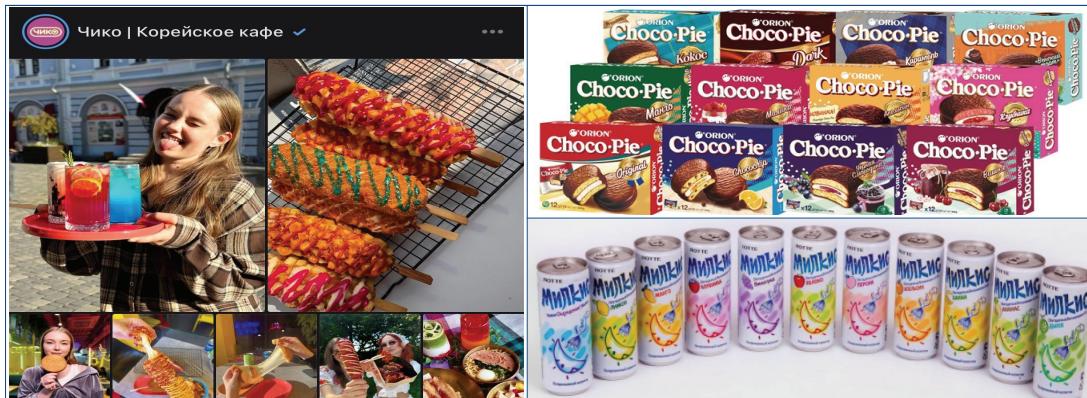
전략 수립 배경

- 한류 콘텐츠(드라마, 음악, 웹툰) 영향이 소비문화 전반에 침투하며 K-POP 굿즈, 콜라보 패션·뷰티·음식 등 파생산업 수요 상승
- 한국 소비재 수출 확대 시기에 브랜드 이미지 구축 통한 시장 점유율 추가 확보, 한류 콘텐츠 및 현지 SNS 적극 활용한 마케팅 필요

□ 현지 동향

- CIS 전역에 걸쳐 한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1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며 한국에 우호적인 소비자 기반 형성
 - (K-Pop) 러시아 한류의 중심으로 굿즈 및 커버댄스 시장도 지속 성장, '22년 러-우 사태 이후 중단되었던 한국 아이돌 콘서트도 '24년부터 재개
 - (K-Contents) 러시아 3대 플랫폼(Kinopoisk, Ivi, Okko)* 모두 K-콘텐츠 취급 확대, 한류 확산 속 한국 드라마·영화 인지도는 최고 수준
- * '22년 이후 Netflix 등 서구 플랫폼 철수하며 러시아 자체 OTT 이용 활발
- (K-Beauty) '20년 이후 기초화장품을 주력으로 러시아 수입시장 1위, 최근 기능성 및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로 한국 브랜드 인기 지속
- (K-Food) '24년 3월 한국 편의점 프랜차이즈 카자흐스탄 1호점 개소 이후 현재까지 43호점이 오픈하는 등 젊은 계층 중심으로 한식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제2, 제3의 몽탄 확산 중
 - * 몽탄은 '몽골'과 '동탄 신도시'의 합성어로, 한국형 성공 모델인 편의점 등 유통, 의료, 건설 등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풍경이 경기도 동탄신도시와 비슷해서 생긴 별칭

〈CIS 내 한류 확산 관련 자료〉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한식 스트리트푸드 체인
자료: 국내외 언론 등

러시아에 유통 중인 초코파이(12종), 밀키스(11종)

□ 유망 품목

- (기능성 화장품) 고기능 성분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 기술력과 효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차별화 필요
 - 복잡한 뷰티 루틴을 간소화하려는 소비자 트렌드에 대응해 다기능·올인원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
 - 피부질환 증가 및 소비자의 전문성 추구에 따라 약국 더마코스메틱 수요도 확대되고 있어, 현지 약국 유통망을 활용한 시장 진입 전략도 검토
- (건강기능식품) 자국산 비율이 높은 시장이며 수입산과는 가격 차이 상당, 최근 안티에이징이 전반적 트렌드로 부상하며 현지 유통망 PB 상품 출시 활발
- (K-Pop 굿즈) 러시아 내 온라인 판매 활발하며,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 외에 벨라루스에도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사업 확장 중
- (브랜드 의류) 서방 브랜드 이탈로 오프라인 매장은 중국·러시아 브랜드가 차지, '24년 한국 패션 브랜드가 모스크바 대형 쇼핑몰에 개점하는 등 진출 움직임 존재
- (할랄 인증 가공식품) 중앙아시아 중심으로 무슬림 인구 확산(전체 인구의 약 80%), 식품 가공 기술이 낮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할랄 한식이 제한적

□ 진출전략

- (품목 다양화) 뷰티 진출 품목 대부분이 기초 화장품(스킨케어·크림)으로 한국 제품 간 경쟁 격화, 향수·립스틱 등 현지 트렌드에 맞는 품목 신규 공략 필요
 - 한국 기초화장품의 브랜드 이미지에 힘입어 소비자 사이에서 한국 색조제품에 대한 수요도 뚜렷, 니치 향수 등 최근 트렌드를 한국 브랜드 활용해 선점 필요
- (현지 SNS 활용 마케팅) VK, Telegram, RuTube 등 자국산 SNS가 제재 이후 대체 플랫폼으로 부상, 이를 채널에 한류 콘텐츠를 노출하고 소비자와 소통 필요
 - 해당 플랫폼 내 바이럴 마케팅 효과 탁월, 현지어 SNS 계정을 개설하고 한류 관련 이벤트, 챌린지 등을 기획하여 팬 커뮤니티를 브랜드 커뮤니티로 전환
- (한국 콘텐츠에 등장한 제품 소싱) K-콘텐츠 인기 지속 증가로, 드라마·영화에 등장한 스타일·제품이 러시아 인기에도 실시간 반영, 일례로 오징어게임3 방영 이후 드라마에 등장한 젓병에 대한 바이어 문의 증가
- (인증, 라벨링 사전 준비) 할랄, 비건 등 차별화된 인증 확보로 시장 신뢰도 제고, EAC 식품 인증 및 현지어 라벨링을 준비하여 EAEU 시장 전체 공략

전략 ④

CIS 미래 유망분야 경제협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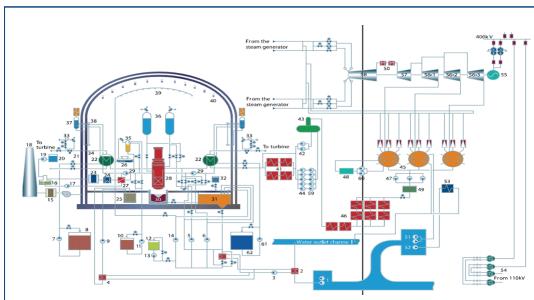
전략 수립 배경

- CIS는 농작물 생산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으로 경작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지원 분야로 스마트팜 등 농업 현대화 선정, 장비와 전문 기술교육 연계 방식으로 접근 유망
- 러시아로부터의 전력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중앙아시아 움직임 강화, 특히 카자흐스탄은 국민투표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 도입을 결정하여 기자재 납품 관련 우리와 협력 가능성 다대
- 對러 제재에 따른 핵심 하드웨어 및 인력 부족 현상을 기술혁신으로 극복코자 AI 정책 이행 컨트롤 타워 설립(러시아) 등 우호국 중심으로 AI 기술 개발 협력 확대 중

□ 현지 동향

- (스마트팜) CIS 내 경작 인구 감소 또는 고령화로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한 농업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 수요 존재
 - 러시아는 정부 산하 국가인공지능센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농업 내 AI 도입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농장 현대화 지원 계획
 - 카자흐스탄은 국영기업 KazAgro를 통해 디지털 농장 및 스마트 온실 조성, 혁신 장비 도입 등 실행
 -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을 포함한 '디지털 파트너 협력 13개국'을 지정하고 온실하우스, 디지털 유통저장 시설 등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추진
 - 아제르바이잔 또한 유통, 보관, 재배 등 농업 전반에 걸친 재래식 농법 현대화 및 단순 판매 루트 개선 희망
 - * 대표적인 농작물 토마토의 경우, 주요 수출시장은 러시아로 對러 관계 악화 시 보복성 금수조치로 현지 농가에 큰 피해
- (에너지) 전력 문제 해결 등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카자흐스탄은 원전 도입,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 국가계획'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 유치 강화
 - 카자흐스탄은 '22년부터 전력 소비량이 생산량을 상회하며 전력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그간 부족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보완
 - 대외의존도와 전력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국민투표로 원전 도입을 결정하였고, '25년 6월에 원전 건설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 주관사로 Rosatom(1호기)과 중국 CNNC(2, 3호기)를 선정(한국수자원 공사는 프랑스 EDF와 같이 공동 3위로 미선정)
 - 우즈베키스탄은 화력발전 비중이 전체의 85%로 의존도가 높고, 주요 발전 연료인 천연가스는 남부에서 생산되나 발전시설은 북부에 위치하며 시설도 노후화 되어 '2020-2030 전력 에너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에너지 다변화 추진

〈VVER-1200(러시아) 원전 시스템 구성도〉



자료: Rosatom

〈카자흐스탄 최초 원전 건설 부지 후보〉



자료: 알마티 무역관 작성

우즈베키스탄 2020~2030 전력 에너지원 계획

(단위: GW, %)

구분	2019년		2025년		2030년	
	용량	비중	용량	비중	용량	비중
화력(가스)	8.5	66.4	13.3	59.7	13.4	45.7
화력(석탄)	2.5	19.5	1.7	7.6	1.7	5.8
수력	1.8	14.1	2.8	12.7	3.8	13.0
풍력	0	0	2	9.0	3	10.2
태양광	0	0	2.5	0	5	17.1
원자력	0	0	0	0	2.4	8.2
총계	12.8	100	22.3	100	29.3	100

자료: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 (AI) 디지털 경제를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
 - 러시아는 對러 제재로 핵심 하드웨어 및 인력 부족한 상황임에도 기술혁신 지속, 2030 국가 AI 발전 전략 이행 및 산업별 AI 적용 확산 노력 확대
 - '25년 5월에 AI 정책 이행 컨트롤 타워인 'AI 개발센터' 설립계획을 발표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인도 등의 우호국과 양자협력 시 AI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여 기술 협력 추진 중
 - 우즈베키스탄은 '디지털 전환(Digital Uzbekistan 2030)' 전략에서 AI·ICT·디지털화를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설정, '26년까지 최소 100개의 AI 관련 프로젝트 출범을 목표로 설정했고 '30년까지 외국인 투자 10억 달러 유치 계획을 발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의 AI 기술 진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법령 서명(25년 10월 22일)

- AI 인프라 구축 및 확산을 위해 향후 5년간 1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중장기 목표 설정
 - '26년 말까지 공공행정·사회부문·경제부문에서 최소 100개의 AI 사업을 실행하고, 전국 대학에 15개의 AI 연구실(Lab) 설치 계획
 - '25년 말까지 전용 AI 포털(ai.gov.uz)을 개설하여 프로젝트, 스타트업, 교육 등 AI 생태계 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
 - 정부·공기업 디지털 전환 평가에 AI 기술 도입 수준을 포함시키고, '26년부터는 연 2회 AI 프로젝트 공모전, 연 1회 대통령 AI 스타트업 공모전 개최하여 민관의 관심을 증폭시킬 예정
 - 외국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의 AI 시장 잠재력을 약 100억 달러로 평가함을 언급

자료: KUN.UZ(Uzbekistan to launch national AI portal and attract \$1 billion in investments, '25년 10월 27일)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스마트팜) 유기농 비료, 센서 및 AI 등을 이용한 농장 현대화 전환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통 농법에 익숙한 농가가 많은 관계로 정부 주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진출
 - 현지 실증화 사업(Test Bed)을 통한 홍보 및 정부 유관기관 마케팅 등으로 시장 공략
 -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 스마트 온실, 농업용 드론 등으로 접근
 - * CIS 내 전력, 난방, 농업용수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많고 현대식 기술 운용 경험이 없어 기술 수준이 다소 낮더라도 현지 상황에 맞는 적정 기술에 대한 고려 필요
 - 스마트팜의 안정적 운영 및 성공 사례를 위해 설치 이후 관련 기술 이해 및 직접 관리 가능한 현지 기술 인력 양성 병행 필요
 - 또한, 국가별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제품과 솔루션 구매·유통·R&D에 정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현지 파트너링을 통해 시장 진출 공략

〈아제르바이잔 정부 육성 농업 특구 'Agro Park'〉

- 농축산 생산-가공-유통을 일괄 시행하는 대형 농장을 농업특구로 지정, 정부가 보조금·R&D·시범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 '25년 3월 현재 아제르바이잔 전역에 총 24개 특구(국유농장 2, 민간농장 22), 약 6만ha 규모 운영, '24년까지 약 5억 3,000만 달러의 민간자본 투자 유치
- 구체적으로는 축산업 특구 6개, 과일 특구 6개, 곡물 특구 11개, 포장·유통 특구 1개 등 운영 중이며, '24년 생산품 총액은 약 9,000억 달러로 평가



자료: KOTRA 바库 무역관

- (에너지) EPC 형태의 프로젝트 수주와 건설 및 에지니어링 관련 서비스 제공
 - 한국은 다양한 인프라 및 에너지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건설 역량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EPC 형태의 프로젝트 수주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 국제기구 파이낸싱을 통한 발전소 현대화·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우 조달·환경·사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제 엔지니어링 서비스 참여 필요성이 한층 높아짐
 - 해외 자본 참여 프로젝트의 경우, EPC 시공사 외부의 독립적 감리 및 엔지니어링 검증 서비스를 필수로 요구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종합 에너지·플랜트 기업 D사, 카자흐스탄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사업 수주

- (개요) 현지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남부지역 대형 화력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 수주
- (내용)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력 수급 안정과 '6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남부 투르키스탄주에 1,050MW 규모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 D사는 현지 대형 건설사인 BAZIS-A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3년 3월 EPC 계약을 체결했으며, '26년 8월까지 발전소 준공을 목표로 함
 - 본 프로젝트를 통해 가스 터빈, 폐열회수 보일러 등 국산 기자재 1조 원 이상 수출이 기대됨
- (시사점) 현지 건설사와의 협력 구조를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향후 신재생·수소·원자력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더불어 카자흐스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를 확보

- (AI) 산업형 AI 중심으로 현지 파트너링 및 패키지형 수출 등으로 시장 공략
 - CIS의 자국 산업 육성 정책에 맞춰 스마트 팩토리, 제조업 예지보전*, 물류 자동화 등 산업형 AI 모델로 시장 공략
 - * 기계·설비가 고장나기 전에 미리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필요한 시점에만 수리를 하는 스마트 유지보수 방식
 - 데이터 주권 규제가 타 지역보다 강하기 때문에 단독 진출보다는 현지 클라우드·데이터센터·IT파크와의 협력 추진하고 인재 양성·합작법인·스타트업 협력 체계 구축
 - 단순 AI 소프트웨어 판매보다는 패키지형(AI 솔루션+하드웨어+서비스) 모델로 경쟁력 강화하고,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거점으로 CIS 시장 확대

러시아 AI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주요 동향
Yande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최대 IT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서비스의 핵심으로 키우기 위해 'Yandex GPT' 개발, 해당 시스템이 장착된 AI 비서 Alice는 러시아 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 최근 공개된 'YandexGPT5'는 'GPT-4oMini' 준하거나 앞선다고 평가
S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최대 금융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업은 은행업무를 넘어 AI를 활용 테크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 중 - 슈퍼컴퓨터 'Christofai NEO'를 운영하는 AI 모델 학습 진행 중 - SberCloud, SberMedi, SberDevices 등 자회사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또한, 매년 러시아 최대 AI 포럼인 'AI Journey'를 개최하여 교류의장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er 챗봇 'Gigachat', 이미지 생성 모델 'Kandinsky'는 약 1,800만 명의 사용자 수 기록
M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최대 이동통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90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는 개발자용 AI 비서 'Kodify 2' 출시 - '21년 안면인식 솔루션기업 'Vision Lab' 인수를 통해 자사 3,500개 매장에 안면인식 서비스 운영 - 그 외 화상회의 솔루션, 핀테크, 영상 스트리밍, 광고 플랫폼 등 제공 서비스에 AI 적용 - MTS 산하 MWS AI, 자체 LLM 개발에 약 1,200만 달러 투자

자료: 기업 홈페이지 및 KOTRA 노보시비르스크 자료 종합

전략 ⑤

코카서스 3국 신시장 개척, 전후 복구 재건사업 참가



전략 수립 배경

- CIS 주요국은 이미 기 진출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반면, 코카서스 3국은 최근 한국과의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여 유망 신흥·틈새시장으로 부상 중
- 특히, 세계은행이 기업환경을 평가하는 Business-Ready에 3위로 뽑힌 조지아는 최근 한국과 CIS 국가 최초로 EPA를 체결하면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우크라이나·카라바흐 등 재건사업의 경우 직접 수주는 다소 어려우나, 하청·기자재 납품 등 협력 방안 역시 유망

〈코카서스 3국〉

□ 현지 동향

- 시장 규모는 작지만 대한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미개척 유망시장이며, 중국과 유럽을 잇는 물류노선의 핵심지역으로 최근 전략적 가치 부상

구분	주요 내용	인구	1인당 GDP	특징	KOTRA 유무
	아제르바이잔	1,030만 명	\$7,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석유·가스) 중심, 탈석유 추진 TITR 물류 핵심 거점 	바쿠
조지아	조지아	370만 명	\$9,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IT 허브, 친기업/친외국인 '24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 3위 	트빌리시 ('25년 11월 개관)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310만 명	\$8,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기반 취약, 소비·서비스 중심 对러 의존도 높음, 내류국으로 물류 제약 	모스크바 관할

자료: KOTRA 바쿠, 트빌리시 무역관 자료 종합

-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3국을 지칭하며, 러시아 남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코카서스 산맥에 위치
- 총 인구 약 1,700만 명, 1인당 GDP는 8~9천 달러의 소규모 시장이나, '24년 한국의 对코카서스 수출이 '20년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향후 잠재력 기대
- * ('20년) 1.9억 달러 → ('21년) 2.3억 달러 → ('22년) 3.4억 달러 → ('23년) 4.7억 달러 → ('24년) 3.7억 달러

- 러-우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됨에 따라 러시아를 경유하여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북부경로의 대안으로 코카서스 3국을 경유하는 '환카스피해 국제운송경로'의 중요도가 부상

〈환카스피해 국제운송경로(TITR, 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

- 중국 → 카자흐스탄 → 아제르바이잔 → 조지아 → 유럽, 철도+해상 구간으로 구성
- 러-우 사태 이후 '23~'24년 중국발 컨테이너 수가 33배 증가하는 등 물동량이 급증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및 EU의 Global Gateway 구상과 연계하여 국제 다자개발은행과 유럽 투자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노후 인프라 개선, 수송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젝트 활발히 추진 중
- 세계은행은 '30년까지 유럽으로의 물동량이 3배로 증가하고 이동시간이 15일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



자료: KOTRA 트빌리시 무역관

- 특히, 조지아는 CIS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EAP를 체결('24년 11월)하고, 친 외국인 정책*으로 우리 기업의 코카서스 3국 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데 유리한 여건

* 법인 설립 절차 및 규제 간소화, 자유산업지대(FIZ) 입주기업 면세 혜택 등

□ 진출전략

- (EPA 활용) 조지아를 진출거점으로 타 코카서스 국가 및 인근국 동시 진출 모색
 - 조지아는 EU-CIS를 연결하는 물류 요충지로, 현재 한국 → 코카서스 수출 물량도 대부분이 조지아를 경유
 - * 조지아의 대외교역액은 ('23년) 217억 달러 → ('24년) 235억 달러 → ('25년 9월) 185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세('25년 10월 조지아 통계청)
 - 동시에 CIS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EAP를 체결('24년 11월)하고, 친 외국인 정책*으로 우리 기업의 코카서스 3국 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데 유리한 여건
 - * 법인 설립 절차 및 규제 간소화, 자유산업지대(FIZ) 입주기업 면세 혜택 등

※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주요 타결 내용

- (상품)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 93.3%, 조지아는 91.6%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
 - 승용차(중고 승용차 포함), K-푸드, K-뷰티 제품 관세 즉시 철폐
- (서비스) 조지아의 해운, 도로화물운송, 창고업 등 폭넓게 개방
- (조달시장) 조지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4,800여 개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 조달시장 개방
- (디지털무역)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금지 영구화(K-콘텐츠 경쟁력 확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사양산업 연착륙) 내연기관車 부품, 화력발전용 기자재, 금속 가공품 등
 - 탈탄소시대 사양산업 품목은 여전히 CIS·코카서스 지역에서 높은 수요를 유지
 - 수출, 기자재 및 기술 이전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대체 수요 창출 기대

〈재건사업〉

□ 현지 동향

- (카라바흐) 미국 중재로 37년간의 분쟁 종식, 다방면에 걸친 프로젝트 진행

※ 카라바흐 전후 복구·재건 프로젝트 개요

- (규모) '20~'24년 \$103억기투자, '25년 \$28억
- (내역)
 - △ 16만ha 부지 지뢰 제거 △ 공항·도로·철도 건설
 - △ 실향민 스마트빌리지(주거·학교·주민복지시설) 조성
 - △ 신재생(60MW) + 화력발전소 신설 + 전력공급망 구축
 - △ 가스 및 온수 공급망 구축 △ 현대식 대형 농장 구축
 - △ 지역 디지털 관리허브 구축 △ 산업단지·물류센터 조성



- 재건 프로젝트에는 아제르바이잔 정부 재정 투입에 더해 세계은행·EBRD·AIIB·이슬람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의 자금도 투입
- 고속도로·공항·발전소 등 핵심 인프라 재건 중심의 1차 프로젝트는 대부분 완료하고 개별지역·시설 단위의 2차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 중
 - * 지역단위 국립병원·학교 건립, 주거지역 스마트 빌리지 개발, 체육시설 재건 등
- 아제르바이잔 정부기관·공공벤더가 던키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일부 과업을 해외 기업에 발주하는 형태로 진행, 대부분 발주처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므로 프로젝트 수주기업의 참여 리스크는 비교적 낮음
- (우크라이나) 러-우 사태 장기화로 경제 회복 난항
 - '25년 2월 기준,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 비용은 5,236억 달러* 추산
 - * 세계은행, 우크라이나 정부, EU, UN 공동 작성한 보고서('22년 2월~'24년 12월) 산출
 - 회복과 재건 기간을 10년으로 상정했을 때의 소요비용이며, 해당 규모는 우크라이나 '24년 GDP의 2.6배에 해당
 - 금년도 긴급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금은 173억 달러에 달하나, 이 중 확보된 자금은 74억 달러에 불과
 - 우크라이나는 지원하는 국가에게 재건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며, 개별 공여국 중 미국이 압도적이고, 비군사적 지원으로는 EU, 독일, 일본 순임

※ 젤렌스키 대통령, '25년 5월

- “러-우 사태 중 무기든, 에너지든, 재정이든 우크라이나를 도왔던 국가들이 재건 참여 우선권이 있음”

주요 국가별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단위: 억 유로)

순위	국가명	총 지원금액	군사 지원	인도적 지원	유무상 재정지원
1	미국	1,146.3	646.2	34.2	466.0
2	독일	172.7	126.2	32.4	14.1
3	영국	151.7	103.6	9.6	38.4
4	일본	105.3	0.6	12.8	91.8
5	캐나다	103.1	29.7	5.0	68.4
22	한국	8.1	0.2	3.2	4.7

자료: 킬 세계 경제연구소('25년 4월)

복구 및 재건을 위한 9가지 부문별 우선순위 영역

분야		핵심 영역
사회부문	주택	주택 및 관련 산업시설 재건
	교육 및 과학	교육시설 및 건물 재건
	보건	의료기반 시설 및 시설 복원 및 강화
	사회보호 및 생계	참전용사, 국내 실향민, 사회보호 기관 및 국가 업무 관련 시설, 시스템 및 기반 시설 재건
인프라부문	에너지 및 광업	에너지, 광업 시스템, 기반 시설 복원 및 보호
	운송	운송 네트워크 및 기반 시설 재건
	물 공급 및 위생	물 공급, 위생, 관개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 재건
자료제거 및 민간보호	폭발물 관리	인명보호와 안전한 통행 재개를 위한 폭발물 정리
	긴급대응 및 민간보호	대형 방공호(혹은 대피시설) 구축, 민방위 체계 강화

자료: RDNA4

□ 진출전략

- (카라바흐)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높은 프로젝트의 전체 수주보다 서브 프로젝트의 장비나 기자재의 납품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 튀르키예를 제외한 해외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turn-key 수주 사례는 거의 없으며, 아제르바이잔 정부기관 및 대기업이 사업 수행
 - * '50~'60년대 석유개발이 영국 등 해외 자본으로 추진되며 여전히 자결권 보장이 되지 않아, 대형 프로젝트는 자국 기업 수행을 선호
 - * 최근 긴밀한 통상협력 중인 중국에게도 EPC 일괄 발주, 현지 운영권 부여는 사례는 거의 없음
 - 세부 섹터별 프로젝트 권한을 보유한 기관·기업 집중 공략, 한국 기업 납품 사례가 있는 전력기자재 분야 유망* 전력 차폐기, 열교환기, 변전소용 기자재 등

- 한국 ‘스마트시티’ 개념을 수복지역에 접목 가능하며, △ 조명 효율·자동화 △ 지역 네트워크 구축 솔루션 △ 자동경보 시스템 등 현지 수요 다수
 - ① (카라바흐, 우크라) 현지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 수출을 통한 단기적 참여 추진
 - 인프라 건설 등 전체 프로젝트 수주가 아닌 서브 프로젝트의 장비나 기자재 납품, 긴급 재건에 필요한 품목(의료기기, 의약품, 식품가공 등) 위주의 수출을 공량

*** 가공식품 수입바이어 V社**

- “식품 산업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빠르게 생산을 복구하고 있는 산업으로 정부 지원 및 제품생산 라인 확장 수요가 증가하여 한국 식품, 식품가공 기술, 생산설비 라인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

② (우크라) G2G 기반 유무상원조(ODA 및 EDCF) 사업 활용

- (명칭)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정의)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장기·저리 차관 (유상원조) 기금
- (목적) 한국과 지원 대상국 간 경제협력 강화, 한국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지원, 개발도상국의 인프라·경제 발전 기여
- (특징) 유상원조(차관 형태), 저금리 장기상환 조건, 인프라·교통·전력·수자원·정보통신 등 프로젝트 중심
 - 우리 정부의 ODA, KSP 사업 및 인도적 지원(현물지원) 등을 통해 재건사업 참여 기반 마련 및 기부·납품 중심으로 협력 진행
 - 한국 기업의 EDCF를 활용한 재건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확보
 - * '23년 9월 우리나라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EDCF 차관에 관한 협정 체결
 - * EDCF 사업 우선순위 : 재건복구 중심으로 공공·사회분야 우선(우크라이나 경제부)

한-우크라이나 협력사업 추진 현황(ODA사업 15건, 1억 3,000만 달러 규모)

구분	사업 주요 내용
KOICA (12건)	'23년 (1건) 키이우주 재활의료 역량강화 사업('23~'27년/500만 달러)
	오데사-이즈마일-레니 구간 철도용량 증대 타당성 조사('24~'26년/600만 달러)
	키이우-국경 구간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24~'27년/800만 달러)
	항공운송 안전성·효율성을 위한 보리스필공항 현대화 사업('24~'28년/1,400만 달러)
	'24년 (7건) 미콜라이우주 전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효율성 개선 사업('24~'28년/1,400만 달러)
	우크라이나 정부 효율성 개선,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 사업('24~'28년/500만 달러)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바실키브 직업학교 재건 사업('24~'27년/1,500만 달러)
	유니세프 온라인교육 플랫폼 개선 지원 사업('24~'26년 /500만 달러)
	에너지 분산화 및 녹색전환 지원 사업('25~'28년/1,400만 달러)
	'25년 (4건) 국립아동병원 소아 트라우마 및 재활의료 서비스 강화 사업('25~'28년/1,400만 달러)
	수자원 효율성 증대를 통한 지역 농업생산성 제고 사업('25~'29년/900만 달러)
	러·우사태 피해아동 치료 및 보호를 위한 아동지원센터 구축('25~'28년/1,400만 달러)
국토교통부 (3건)	키이우 지역 교통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
	철도교통관제센터 타당성 조사 사업
	보리스필 공항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

③ (우크라이나) 종전 후, 프로젝트 수주와 투자가 동반된 산업 협력 추진

- 우크라이나는 고속철도, 수자원, 에너지, 자원, 방산,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제안

* 키이우무역관 내 ‘플랜트 수주지원 센터’ 개설·운영으로 프로젝트 수주활동 지원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화장품

- | | |
|------|--|
| 선정사유 | • 시장 내 한국산 인지도 최고 수준인 한편, 젊은 소비층 지출 증가로 시장 자체에 대한 유망성 지속 |
| 경쟁동향 | • 일부 글로벌 브랜드 공급 감소 속 한국 기업 간 경쟁 과열 양상, 러시아 기업도 현지 생산 시작 |
| 진출방향 | • SNS·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색조화장품·향수류 등으로 품목 다변화 |
| 유망국가 |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몽골 등 |

식품류(면류·김·커피 등)

- | | |
|------|---|
| 선정사유 | •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 식품 수요 증가, 특히 라면·김·소스류·제과류 등의 꾸준한 인기 지속 |
| 경쟁동향 | • 중국, 베트남 등 타 아시아 국가 식품과 수요증이 일부 겹쳐 경쟁 발생, 짹퉁 제품도 일부 등장 |
| 진출방향 | • 기존 인기 제품 기반의 신제품 출시(예, 초코파이 12종류), SNS 바이럴 마케팅으로 한류-마케팅 믹스 전략 |
| 유망국가 | •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

중고차

- | | |
|------|--|
| 선정사유 | • 각국의 자체 자동차 생산 기반이 미약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가격 민감도가 높아 수입 중고차 수요 다대 |
| 경쟁동향 | • 전통적으로 일본산의 비중이 높으며,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중국산 공급이 점차 증가 추세 |
| 진출방향 | • 현지 파트너 및 딜러사 발굴, 생산거점의 중앙아시아 이전 속 중앙아시아 시장 연계 진출 |
| 유망국가 | •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몽골 등 |

자동차 부품(단, HS 8708.99는 통제 대상)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 중고차 비중이 높고 우핸들 차량 수입 금지(카자흐스탄, 몽골 등) 등으로 수리 및 부품 교체 수요 증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저가 부품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품질이 검증된 한국·일본산이 현지에서 높은 인기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평균소득을 감안, 가격대별 제품군 다양화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등

자동차 소모품(타이어, 윤활유 등)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우 사태로 인한 수입품 공급 감소로 한국산의 프리미엄화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한국·일본·중국산이 경쟁, 서방 제품도 일부 공급 지속으로 경쟁 브랜드는 많은 편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품질에 맞는 타깃군 설정(프리미엄-일반-중저가 군), 자사 브랜드 론칭 희망 OEM 수요에 대응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등

의료기기(초음파 영상진단기기, X-ray 등)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산 의료기기의對러 공급 감소, CIS 각국의 의료 인프라 확충 정책 등으로 한국산 수요 발생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급 장비의 경우 독일·일본산, 저가 장비의 경우 중국산과 주로 경쟁
진출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실한 A/S 제공으로 시장 내 신뢰도 확보, 현지 벤더와 협업하여 정부·의료기관 입찰에 참여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등

의약류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수입의존도, 기존 유럽산 고가 제품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우 사태 등으로 서방 제품 공급 감소 속 현지 기업들의 자체 생산 노력
진출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고수요 품목 및 공급 부족 예상 품목(심혈관 관련 제품 등) 집중 타깃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등

설비·기계류

선정사유 • 자원 의존형 경제구조 극복을 위한 CIS 각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설비·기계류 수요가 증가세

경쟁동향 • 자원 의존형 경제구조 극복을 위한 CIS 각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설비·기계류 수요가 증가세

진출방안 • 현지 수요 및 인증 절차에 정통한 파트너 물색, 현지 기업과 합작·현지 생산 추진

유망국가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등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콘텐츠

선정사유	• 글로벌 OTT 러시아 철수로 대체 콘텐츠 수요 증가, CIS 현지 한류 확산으로 한국 콘텐츠 인지도 상승
경쟁동향	• 튀르키예 및 타 아시아 국가 콘텐츠와 수요증이 일부 겹쳐 경쟁 발생, 현지 자체 콘텐츠 생산 노력
진출방향	• 현지 주요 플랫폼과 협업, 게임·웹툰 등으로 분야 다변화
유망국가	•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등

의료서비스(원격의료, 의료관광 등)

선정사유	• 한국 의료에 대한 좋은 평판으로 과거부터 CIS 국민의 한국 의료관광 활발, 현지 정부의 의료디지털화 정책
경쟁동향	• 자국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 중국행 의료관광 증가 추세
진출방향	• 현지 병원 및 여행사와 협력 강화, CIS 국민에 최적화된 의료서비스 프로세스 구축·체계화
유망국가	•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몽골 등

건설·인프라

선정사유	• CIS 각국의 지방 개발, 재건 사업, 인프라 확충 정책 등으로 건설 수요 증가세
경쟁동향	•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강하고 지리적으로도 밀접한 러시아, 중국 기업의 수주 사례 多
진출방향	• 기술력이 요구되는 플랜트 프로젝트 타깃, Engineering(설계·감리) 위주 수주 검토, • 중간재 조달 및 서브 프로젝트 수주 공략
유망국가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물류

선정사유 • 러-우 사태 이후 CIS 공급난 재편 과정에서 신규·대체 물류 노선 개발 가속화

경쟁동향 • 중국발 CIS 물류 수요 급증에 따라 중국계 기업 다수 진출

진출방안 •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다각화 통한 비즈니스 유지, 러시아·중국 기업으로의 고객군 확대

유망국가 •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등

IT, SW

선정사유 • CIS 각국 정부는 국가 디지털화 및 행정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금융산업 발달로 펀테크,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세

경쟁동향 • 미국, 일본, EU, 러시아 등 소프트웨어 강국 간 경쟁이 치열

진출방안 • 현지 사정에 능통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서비스 자문 등 고려

유망국가 •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

교육

선정사유 • 온라인 교육에 관한 관심 증가, 높은 교육열과 한국 시스템에 관한 관심 확대

경쟁동향 • 자체 개발 플랫폼, 콘텐츠 등이 일부 존재하나, 역량이 높지 않은 편이며 전반적으로 아직 시장 활성화 전

진출방향 • 특색 있는 콘텐츠에 집중하여 진출 가능성 탐진

유망국가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몽골 등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26년 CIS 지역 KOTRA 주요사업

무역관 명	주요 행사	일시(잠정)
스마트팜·AI	아제르 최대 농업박람회 CASPIAN AGRO 연계 판촉전 5월/바쿠	
	스마트농업 특화 1:1 상담회 6월/바쿠	
	한-아제르바이잔 농업 협력 세미나(양국 정부 및 공공기관 협업) 10월/바쿠	
	CIS 스마트팜 로드쇼 상반기/알마티, 모스크바	
	AI·실거래데이터 활용 바이어 발굴 연중/온라인	
에너지	스마트시티 해외협력센터 운영 연중/타슈켄트	
	한국-카자흐스탄 물 사절단 9월/알마티	
	카자흐스탄 Powerexpo 전시회 한국관 10월/알마티	
경제협력·프로젝트	울산시-동서발전 협업 한국-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포럼 미정/타슈켄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담 연계 사업 미정/알마티	
서비스콘텐츠	Licensing Summit 연계 K-Content Road Show 9월/모스크바	
	서비스산업 러시아 진출 지원 사업 연중/모스크바	
의료·헬스케어	2026 TIHE 연계 한국-우즈베키스탄 메디컬 파트너십 4월/타슈켄트	
	Russian Healthcare Week 전시회 한국관 12월/모스크바	
	아제르바이잔 바이오헬스 시장 진출 웨비나 및 1:1 상담회 상반기/바쿠	
뷰티	2026 몽골 뷰티엑스포 연계 K-Beauty 쇼케이스 3월/울란바토르	
	Intercharm Professional 연계 K-Beauty Forum·Partnering 4월/모스크바	
	Intercharm 뷰티 박람회 한국관 10월/모스크바	
생활 소비재	K-Goods Road Show 6월/모스크바	
	극동러 주력 유통망 K-소비재 판촉전 8월/블라디보스톡	
	K-Festival 연계 K-소비재 판촉전 10월/블라디보스톡	
	K-street 팝업스토어 in 상트페테르부르크 상반기/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주요 유통망 입점 지원 연중/러시아 전국 무역관	
	경북·전북 내수/수출초보기업 극동 러시아 유통망 입점·판촉 지원 연중/블라디보스톡	
	K-Goods 현지 입점 및 디지털 마케팅 연중/바쿠	
식품	현지 대형 유통망 입점 무역사절단 연중/타슈켄트	
	Siberian Food week 연계 수출상담회 11월/노보시비尔斯크	
기타	K-wave 축제 연계 한식 대전 하반기/상트페테르부르크	
	2026 몽골 프랜차이즈 로드쇼 상반기/울란바토르	
	수출 중단 초보기업 화상상담회 연중/온라인	
	KSP 개발협력지원사업 연중/타슈켄트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제2차 GCC-중앙아시아 정상회의	4월 22~2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ADB(아시아개발은행) 제59차 연차총회	5월 3~6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GEF(지구환경금융) 제8차 총회	5월 31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SCO(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9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러시아 하원(국가 두마) 의원 선거	9월 18~20일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정상회담	미정	
중앙아시아-한국 정상회의	미정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EAEU-이란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1월 1일	
우즈베키스탄 농산물 부가가치세 폐지	1월 1일	잠정
우즈베키스탄 온실가스 배출 제한법 발효	1월 1일	잠정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6월 3~6일	러 대통령 참석(잠정)
UNCCD COP17	8월 17~28일	
동방경제포럼(EEF)	9월	러 대통령 참석(잠정)
우즈베키스탄 국가건강보험(MHI) 전국 시행	10월 1일	잠정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	'26년	잠정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 식품 전시회	2월 9~12일	모스크바
2026 우즈베키스탄 국제 건설 박람회	2월 10~12	타슈켄트
2026 몽골 뷔티·헬스 엑스포	2월 27일~3월 1일	울란바토르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러시아 모스크바 석유·가스 전시회	3월 2~5일	모스크바
벨라루스 전자 공학 장비 박람회	3월 17~19일	민스크
러시아 산업 종합 전시회	3월 24~25일	옴스크
2026 우즈베키스탄 국제 농업 박람회	3월 25~27일	타슈켄트
러시아 모스크바 건축자재·기술 전시회	3월 31일~4월 3일	모스크바
2026 벨라루스 요식/유통업 박람회	3월 31일~4월 2일	민스크
2026 우즈베키스탄 국제 식품산업 전시회	4월 1~3일	타슈켄트
2026 우즈베키스탄 국제 포장·장비·자재 전시회	4월 1~3일	타슈켄트
러시아 인터참 B2B 뷔티 전시회	4월 7~8일	모스크바
2026 몽골 건축 박람회	4월 9~11일	울란바토르
러시아 모스크바 전자부품·기술 전시회	4월 14~16일	모스크바
2026 몽골 광업 박람회	4월 15~17일	울란바토르
2026 벨라루스 공기 정화, 환기 및 냉동 장비 박람회	4월 17일	민스크
2026 벨라루스 물·열 공급 기술·장비 박람회	4월 17일	민스크
카자흐스탄 국제 관광산업 박람회	4월 22~24일	알마티
2026 우즈베키스탄 국제 의료 전시회	4월 28~30일	타슈켄트
2026 우즈베키스탄 미용산업 전시회	4월 28~30일	타슈켄트
벨라루스 의료 포럼	4월	민스크
2026 몽골 주택산업 엑스포	4월	울란바토르
아제르바이잔 국제 농업전시회	5월 5~8일	바쿠
중앙아시아 치과 기자재 박람회	5월 12~14일	알마티
시베리아 교통 포럼·전시회	5월 20~23일	노보시비尔斯크
카자흐스탄 국제 보건 박람회	5월 20~22일	알마티
중앙아시아 뷔티 산업 박람회	5월 28~30일	알마티
벨라루스 국제 식품산업 전시회	6월 2~6일	민스크
벨라루스 식품 제품, 가공 장비 박람회	6월 2~6일	민스크
아제르바이잔 석유·가스 박람회	6월 3~5일	바쿠
러시아 산업 종합 전시회	7월 6~9일	예카테린부르크
러시아 자동차·부품 전시회	8월 25~28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제르바이잔 국제 방산 전시회	9월 22~24일	바쿠
벨라루스 산업 및 혁신 포럼	9월 22~24일	민스크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벨라루스 실험실 장비·기술 박람회	9월 22~24일	민스크
2026 벨라루스 스마트 산업 박람회	9월 22~24일	민스크
러시아 라이센싱 전시회	9월	모스크바
러시아 치과산업 전시회	9월	모스크바
우크라이나 인터참 화장품 전시회	9월	키이우
카자흐스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	9월	알마티
몽골 광업주간	9월	울란바토르
러시아 인터참 화장품 전시회	10월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알마티 에너지산업 박람회	10월	알마티
2026 카자흐스탄 농업 박람회	10월	알마티
2026 몽골 의료산업 박람회	10월	울란바토르
카자흐스탄 식품산업 박람회	11월	알마티
러시아 의료산업 전시회	12월	모스크바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예광호	차장	CIS지역본부	+7-499-656-1627(104)	khyea@kotra.or.kr
2	오명준	Specialist	CIS지역본부	+7-499-656-1627(428)	myeongjun.oh@kotra.or.kr



2026 CIS 진출전략



ISBN: 979-11-402-1467-9 (93320)
979-11-402-1468-6 (95320)(PDF)